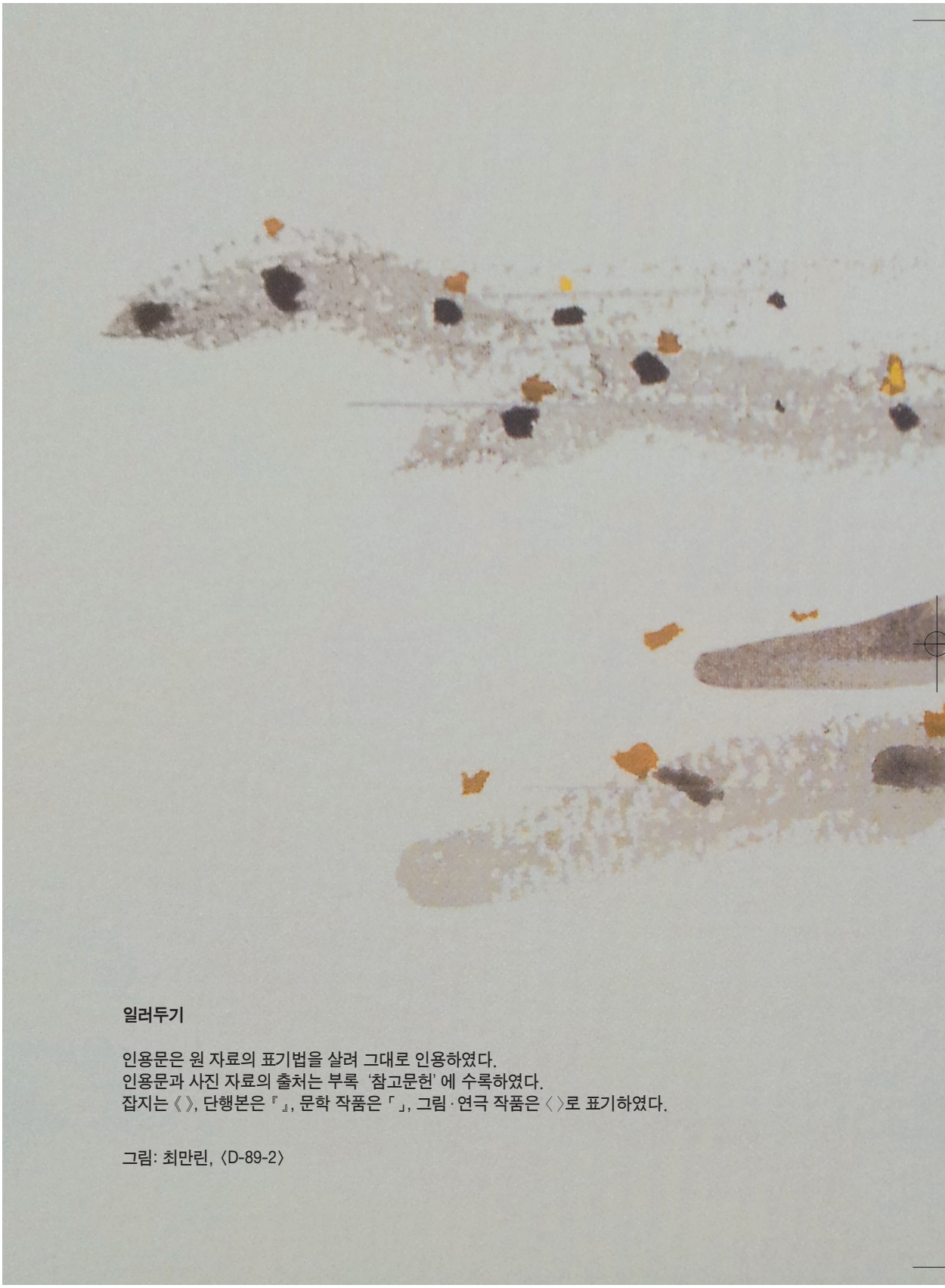
정릉동 2013.12.26 3:32 PM 페이지 1

정릉동 2013.12.26 3:32 PM 페이지 2

정릉동 2013.12.26 3:32 PM 페이지 1

정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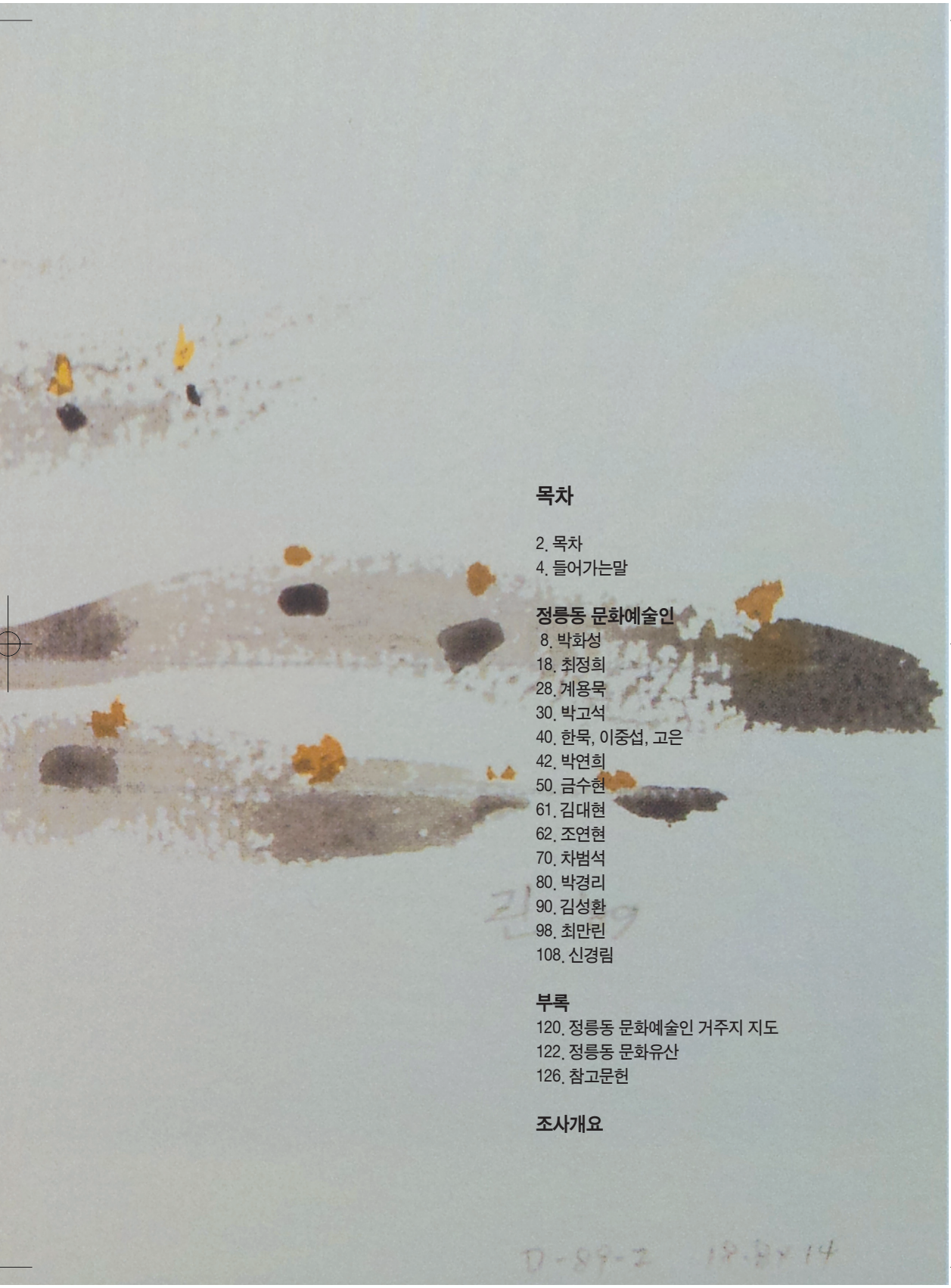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일러두기

인용문은 원 자료의 표기법을 살려 그대로 인용하였다.
인용문과 사진 자료의 출처는 부록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잡지는 《 》, 단행본은 『 』, 문학 작품은 「 」, 그림 · 연극 작품은 〈 〉로 표기하였다.

그림: 최만린, 〈D-89-2〉



목차

2. 목차
4. 들어가는말

정릉동 문화예술인
8. 박화성
18. 최정희
28. 계용묵
30. 박고석
40. 한묵, 이중섭, 고은
42. 박연희
50. 금수현
61. 김대현
62. 조연현
70. 차범석
80. 박경리
90. 김성환
98. 최만린
108. 신경림

부록
120. 정릉동 문화예술인 거주지 지도
122. 정릉동 문화유산
126. 참고문헌

조사개요

들어가는 말

정릉동貞陵洞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陵이 있는 마을입니다. 신덕왕후의 능은 처음에 중구 정동에 있었지만 태종 때 지금 자리로 옮겼습니다. 능을 돌보는 이가 없어 허물어진 것을 현종 10년(1669) 때 재정비 하였고, 신덕왕후는 종묘에 다시 배향되었습니다. 정릉동 일대는 능말, 소정릉동, 정릉리 등으로 불렸고, 고양군에 속하였다가 해방 후 서울에 편입되었습니다.

정릉동은 북한산에 닿아 공기가 좋고, 푸른 숲과 맑은 계곡물이 있어 봄이면 꽃놀이, 여름이면 천렵,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눈 구경을 하러 나들이를 오는 곳이었습니다.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세 봉우리가 솟아 삼각산이라고도 부르는 북한산에는 숙종 때 쌓은 북한산성이 남아있습니다.

정릉유원지에 있는 '청수장淸水莊' 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별장으로 쓰이다 해방 후 요정(요릿집)과 호텔로 운영되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회동이나 연회의 장소로 쓰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회갑연을 열거나 신혼여행을 오기도 하였고, 문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유흥시설의 기능을 잃고, 건물 본관은 안내소로 쓰이지만, '청수장' 이라는 지명이 남아 옛 기억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산과 가깝고 개발 속도가 느려 정릉동은 삼선동, 돈암동 등 다른 동네보다 집값이 싸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정릉천의 물과 모래를 이용해 벽돌을 만들어 직접 지은 집이나 국민(영단)주택, 도시형 한옥이 세워졌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방을 전후하여 정릉동에는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여류작가 중 처음으로 장편연재소설을 쓴 박화성과 우리 문단사에서 첫 손에 꼽는 『토지』를 쓴 박경리, 『백치 아다다』의 작가 계용묵, 부조리한 사회상을 소설에 담은 박연희, 《현대문학》을 이끈 문학평론가 조연현,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주자 극작가 차범석, 민중의 삶을 글에 담는 시인 신경림이 있으며, 전후 1세대 조각가 최만린과 '산의 화가' 박고석, '고바우 영감' 의 김성환, 가곡 〈그네〉의 작곡가 금수현과 동요 〈자전거〉의 작곡가 김대현도 정릉에서 작품 활동을 한 예술가입니다.

한적하던 정릉동은 2000년대 뉴타운이 생기며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경관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산 아래 자연과 어우러진 소박한 삶이 있던 정릉동의 이야기를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정릉동』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산책 삼아 뒷산에 올라 나뭇가지를 꺾어다 때는 맛이란 또한 유쾌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첫째 공짜라서 유쾌하거니와 눈에 덮인 산중이란 고요하기 짝이 없고 자연이 풍기는 서정이 꽉 차 있고 해를 받아 따스하기 그지없으며 맑고 싸늘한 공기 내음새는 시중에서는 도저히 맛보기 힘든 천지에서 '삭정이' 등 나무를 두어 단 하고 나면 그 추운 겨울에도 이마에서 땀이 흐르며 불건강하기만 한 이놈의 몸과 마음이 씻기는 듯 느끼는 바 상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 박고석, 「정릉리 풍물」, 1958 -



박고석, 〈정릉 골〉, 1964

소영 박화성
素影 朴花城, 1903~1988

목포에서 태어난 박화성은 여섯 살 때 들어간 학교에서 월반을 거듭해 동년배를 가르칠 만큼 총명하였다. 어린 시절 『숙영낭자전』, 『유충렬전』 같은 고전소설을 외워 이야기해 줄 정도로 문학에 관심 있던 어머니의 영향이었는지 한글을 배우자마자 소설 읽기에 빠져 지냈다. 다른 집에서 책을 빌려다 읽고서도 모자라 집에 있는 책을 몇 번씩 읽곤 했다. 서울로 올라와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열다섯 살에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 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였다. 이후 천안공립보통학교를 거쳐 영광중학교 교사로 초빙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때 시인 조운을 만나 문학 공부를 하며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시 짓는 법을 배우고, 습작을 보이며 필력을 키워나갔다. 조운이 박화성을 문학으로 이끈 사람이라면, 소설가 이광수는 문단 활동의 지원자였다. 추석 전날 밤 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

을 감각적인 문체로 표현한 『추석전야』를 조운이 이광수에게 보냈고, 이광수가 이를 《조선문단》에 추천하여 1925년 문단에 정식 등단한다.

교원들의 거의가 문학애호가이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시인 조 운씨가 있는 환경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문학도가 되어갔다. 한 번은 학교 뜰에 있는 큰 은행나무에 매어 놓은 그네의 노래를 청하기에 4줄 2절의 노래를 지어 보였더니 선생들과 운씨가 대단히 칭찬하였다. 그것을 계기로 그때까지 남몰래 노래와 글을 써 모았던 4권의 노트를 운씨에게 보여 여러 가지의 평을 듣고 시 짓는 법을 배웠다.

- 박화성, 「1923년 9월 1일」 -

스물두 살이란 나이에 등단까지 하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열의로 모교에 다시 편입하여 어린 후배들과 수업을 들었다. 학제가 바뀌며 대학을 가려면 고등보통학교를 4학년까지 다녀야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졸업 후 일본여자대학 영문과에 합격하고, 어렵게 마련한 학비로 드디어 유학을 간다. 유학 중에 구상한 소설 『백화』는 이광수의 추천으로 1932년 동아일보에 6개월 동안 연재되었다. 이 소설은 여류 문인이 쓴 첫 장편연재소설이자 박화성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다. 『백화』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남성들에게 억압받고, 사회의 불합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백화를 통해 사회 문제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름다운 기생인 백화의 사랑 이야기도 인기를 끄는 요인이었다.

박화성은 평생 글을 쓰는 동안 정해진 원고량 보다 두 배 가까이를 쓸 정도로 작품마다 공을 들여 완성했다. 『백화』는 네 번이나 고쳐 쓰다가 펜을 쥔 손에 혹이 생기기까지 하였다. 원고지에 쓴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듭 쓰다보면 원고지 위는 글씨로 가득차기 마련이었다. 고심하여 다시 쓴 문장을 새 종이에 깨끗이 쓴 뒤 오려서 고칠 문장 위에 붙



『백화』, 덕흥서림, 1959
작가가 만든 동아일보 스크랩북
첫 단편집 『고향없는 사람들』, 중앙보급소, 1947
『홍수전후』, 백양당, 1948

이거나 틀린 곳을 칼로 긁어 지우고 다시 써나갔다. 원고를 받는 편집자에겐 고마운 일이지만 작가로서는 고된 일이었다. 그렇지만 온 힘을 다 해 쓴 자신의 글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이 과정까지도 박화성에게는 글쓰기의 일부였다.

또한 등장인물의 말투를 신문사에서 표준어로 바꾸는 것이 걱정되어 원고를 보내며 특정한 표현을 그대로 실어달라고 따로 당부 할 정도로 꼼꼼하였다. 신문에 연재한 「고개를 넘으면」을 쓸 때는 대학원생인 등장인물들의 생활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며 법학, 공학 같은 각 전공 강의까지 들어가며 글을 썼다. 제목과 인물, 관계도, 기획 진행도를 다 짜서 갖추고, 문장이 머리에 떠오른 뒤에야 펜을 드는 철두철미한 글쓰기였다. 바닥에 며칠이고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작품구상을 하는 습관 때문에 집필하는 방 천장 색과 모양은 늘 밝고 반듯하게 마감해놓았다. 여러 준비를 마치고, 일단 쓰기 시작하면 물이 흐르듯 20~30장을 써나갔는데, 새벽부터 아침까지가 가장 집중해서 글을 쓰는 시간이었다.

붓대는 정직해야 한다. 내 삶의 전모가 나타나 있는 생활기록에 거짓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재주껏 성의껏 쓰면 되는 것이다

- 박화성, 『순간과 영원 사이』 -

점차 문화예술인과 교류가 넓어지며 지인들이 관계된 여러 지면에 글이 실렸다. 1930년대는 대표작인 『백화』 외에 단편 『홍수전후』, 장편연재소설 『북국의 여명』을 포함해 소설, 희곡, 동화 등 25편을 발표하였다. 박화성은 경주, 부여, 강서고분 등지로 답사를 다니며 신문에 기행문을 연재하였다. 유적지만 보는 답사가 아니라 농촌이나 영세민들의 삶을 직접 보고 소설 속에 그려냈다. 글을 통해 착취당하며 가난하게 사는 이들을 대변하고, 참담한 사회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어디에선가 내게 대한 기록을 보니까 1926년부터 1930년까지는 공백기간이라고 했는데, 나는 혼자 부정하고 있다. 그들이 공백기라고 하는 그 기간에 나는 눈을 버리며 잠자리에 들어가는 일 없이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워 학과를 전공하면서도 틈틈이 전부터 품고 있던 내 소설의 소재를 살려 장편으로 이룩하려는 큰 욕망에서 피땀을 흘리며 초고를 작성했다.

- 박화성, 「나의 교우록」 -

글을 쓰는 한편 아이를 낳아 키우며 집을 가꾸고 가정을 이뤄나갔다.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 덕분에 꽃동산이라고 할 만큼 꽃과 나무가 많은 집에서 자라서인지 어려운 시절 작은 집을 옮겨 다니며 살 때도 자투리 공간에 늘 꽃을 가꿔 집 안 분위기를 돋우었다. 동네 사람들은 박화성의 집을 일컬어 '꽃재(꽃 화花, 성 성城이란 이름에서 따온 말)' 라고 할 정도였다.

어머니이자 아내로 가정을 꾸리면서도 시간을 쪼개 글을 썼다. 수입이 변변치 않던 때에도 글 쓸 시간을 마련하려고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

기도 했다. 박화성에게 글쓰기는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자 그 자신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횡포로 국어를 쓰지 못하게 되자 집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해방 때까지 글을 쓰지 않았다.

1950년대에 들어 목포와 서울을 오갈 일이 많아졌고,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며 서울에도 집이 필요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용산 후암동에 살다가 종로로 이사하여 사간동에서 한국전쟁을 맞았다. 전쟁 후 남편 사업이 기울며 팔판동, 가회동, 권농동, 인의동(원남동)으로 한 곳에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전셋집을 전전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원고료가 유일한 수입이었고, 「고개를 넘으면」, 「사랑」, 「벼랑에 피는 꽃」까지 잇달아 신문소설을 연재하며 몸도 약해졌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옮겨 다닌 4년은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다행히 1958년 6월부터 경향신문에 연재한 「내일의 태양」이 60회를 넘겼을 때 영화로 만들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영화사에 준 돈을 밑천으로 정릉동에 집을 샀다. 아들 셋의 학비를 부담하고, 병석에 있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일군 집이었다.
아리랑고개와 미도극장 중간쯤에 있던 집(정릉동 130-1번지)은 'ㄷ' 자로 된 스무 평 정도의 한옥이었다. 방 다섯 개는 박화성 부부와 아들 삼형제가 나누어 쓰고, 한 쪽 방은 박화성이 집필실 겸 서재로 썼다. 이곳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둘째 며느리를 맞았고, 셋째 아들까지 대학을 졸업했다.

구월 초순에 경향신문에 연재 중인 「내일의 태양」을 육십 회가 자칫 넘어서 영화사에 넘겼더니 적으나마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서 정릉에 이십 평짜리 집을 샀는데, 대학생 셋의 학비를 부담하고 병자를 낀 살림을 하면서 그래도 삼십만 환 전셋집에서 이만큼 늘려 온 자신의 힘이 신통하게도 생각되었다.

- 박화성, 「눈보라는 개이려나」 -



정릉 집 집필실에서, 1960

성실과 검소, 꼼꼼함은 박화성이 삶을 사는 태도였다.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라고 가르쳤고, 광고지나 파지 뒷면을 모아 초고를 쓸 정도로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손님이 올 때면 하얀 장갑을 끼어 손을 보이지 않았고, 단정한 옷차림과 맵시에 신경을 썼다. 늦은 나이에도 공부를 다시 시작한 향학열, 교사생활까지 한 교육열을 가졌던 박화성이 어머니여서일까, 세 아들 승준, 승세, 승걸 또한 글과 관련된 길을 걸었다. 서울과 목포를 오갈 때면 며칠 후에 만날 텐데도 기차 안에서 집에 있는 어린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쓰게 하였다.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효당曉堂, 송영松影, 세암歲巖처럼 각자 필명을 두세 개씩 만들어 글을 써서 엮고, 어머니에게도 글을 받아 열 쪽이 넘는 신문을 만들기도 했다. 책과 글이 익숙한 집안 분위기가 낳은 작품이었다.

목포 출신 문인들에게 박화성은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 극작가 차범석이나 평론가 최일수 같은 후배들이 서울에 오면 정릉 집으로 박화성을 찾았고, 박화성은 그들이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세



펜클럽 세미나에서 문인들과(가운데가 박화성), 1968

아들이 주축이 된 목포 출신 대학생들의 모임인 '유달문학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던 시인 김하림이나 김송희, 정규남, 둘째 아들 천승세의 친구인 유현종, 이근배, 이이화도 정릉 집에 자주 들리곤 했다. 집에서 30분쯤 거리에는 소설가 박경리의 집이 있어 박화성과 비슷한 연배인 박경리의 어머니와 방아잎이나 깻잎을 다듬어 나누기도 하는 등 서로 오가며 지냈다. 1963년 하월곡동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5년 동안 지낸 정릉 집은 박화성과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기억되는 집이었다. 박화성은 서울에 올라온 이후 문인들이 많이 모이던 갈채다방에서 당시 활동하던 작가들과 안면을 익혔다. 한말숙이나 손소희도 이때 처음 만났고, 모윤숙은 이광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친분을 쌓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조각가라 할 수 있는 김정숙은 '평범해 보이는 외모 속에 깊은 내면을 감추고 계신 분'■이라고 박화성을 기억하며 여러 가르침을 받은 어른이라고 회고하였다. 비슷한 시기 활발하게 활동한 최정희와는 『여류한국』(1965)을 함께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고, 집안 살림과 글쓰기를 병행하느라 사회활동을 할 시간도 없었다. 후에 자서전에서 '문단과 거리, 시골에서 한 문학수업, 문우들과 거리' 를 문단생활에 지장을 준 요인으로 꼽기도 했는데, 자식들이 모두 성장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1960년대 들어서야 문학계의 원로로 여러 활동을 펼쳤다. 한국문인협회 창립이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중앙위원, 한국여류문학인회 초대회장 등을 지냈고, 여러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격려하였다.

"여자란 아내라거나 어미라거나 그런 책임만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제에 소설을 쓴다니 천만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성의 임무가 내 천직이라면 소설을 쓴다는 것, 즉 창작이란 '박화성' 이라는 특정한 인간의 천직일 것이다. 다만 여자인 까닭에 피할 수 없는 천직이 두 개가 거듭 내 등에 지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

여류문인들의 활동을 돕는 원로작가로, 목포 출신 후배들의 스승 같은 선배로 활동하는 한편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한 해에 한 두 작품씩 지면에 발표하고, 글을 모아 책을 엮어냈다. 여든 다섯 살, 생을 마치는 그 해까지 문학잡지에 단편소설을 발표한 박화성. 100편이 넘는 작품은 2004년 전20권인 『박화성문학전집』으로 세상에 다시 소개되었다. 박화성이 문단에 나와 활동할 때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적고, 여성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작가라는 말 앞에 늘 '여류' 라는 수식이 따랐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글을 써서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닌, '박화성' 이라는 작가로 우리 문단에 이름을 남겼다. 1992년 목포에서는 '소영 박화성 문학기념관' 을 세워 박화성을 기념하였다. 친필 원고와 작품, 집필실을 재현한 공간이 2007년 목포문학관으로 옮겨졌고, 박화성의 이름을 건 전국백일장, 문학페스티발 등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천승준, 천승세, 천승걸

박화성의 세 아들은 모두 문학의 길을 걷고 있다. 첫째 승준(1938~)은 문학평론가로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상황과 그 극복의지」, 「서민의 미학-이범선론」 등 평론을 발표하였다. 아내 이규희(1937~)는 1963년 소설 「속솔이뜸의 댕이」로 등단한 소설가이다.

둘째 승세(1939~)는 대학생이던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점례와 소」가 입선하여 등단하였다. 1964년에는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희곡 「물꼬」가, 다음해에는 「만선」이 국립극장 현상모집에 당선되었다. 소설로 『낙과를 줍는 기린』, 『사계의 후조』, 『몸굿』 등이 있다.

셋째 승걸(1941~)은 영문학자이자 번역문학가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사니엘 호손 단편선』, 『댈러웨이 부인』 등 많은 문학작품을 번역하였다.



정릉 집에서 세 아들과 (왼쪽부터 승걸,승세,승준), 1959

박화성

1903년 전라남도 목포 출생
1918년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1921년 전라남도 영광중학교 교사
1925년 《조선문단》에 이광수의 추천으로 「추석전야」 발표
1930년 일본여자대학교 영문과 졸업
1932년 동아일보에 「백화」 연재 시작
1946년 대동아전쟁 이후 멈춘 집필활동을 《예술문화》에 수필 「시풍 형께」를 발표하며 재개
1961년 한국문인협회 창립이사
1965년 한국여류문학인회 초대회장
1966년 예술원 회원
1988년 작고

대표작품

『백화』, 『고향 없는 사람들』, 『홍수전후』, 『고개를 넘으면』, 『사랑』,
『태양은 날로 새롭다』, 『순간과 영원 사이』, 『벼랑에 피는 꽃』, 『눈보라의 운하』 등

상훈

한국문학상 수상(1966), 대한민국예술원상(1970), 3.1문화상(1984)

담인 최정희
淡人 崔貞熙, 1906~1990

최정희는 1906년 함경북도 성진군의 작은 마을 예동에서 태어났다. 한의사였던 아버지는 맏딸인 최정희를 유난히 아껴 다섯 살부터 집에 훈장을 들여 글을 가르쳤다. 열 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외도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뒤로한 채 어머니의 장사를 거들어야 했다. 시골을 떠나 이사한 단천에서 야학을 다닐 때 만난 여선생들처럼 '신여성' 이 되고 싶어 책을 읽다가 종종 장사를 그르치기도 했다. 보다 못한 어머니는 입학 적령기를 한참 넘긴 최정희를 학교에 보낸다. 성진에서 학교를 다니며 기독교 사상이나 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으려는 결심으로 5학년 때 친구와 가출을 하였다.

경성에 있는 동덕여학교를 거쳐 숙명여학교에 들어갔지만, 도시 분위기와 신문물에 빠져 공부보다 영화, 운동경기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았

다. 어린 시절부터 신파 연극패 공연을 쫓아다니면서 연기나 노래에 관심을 보였던 최정희는 무용이나 음악을 더 배워보고 싶었다.
졸업을 앞두고 경성의 여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유치원교사 양성학교인 중앙보육학교(중앙대학교의 전신)에서 축하의 밤을 열어 주었다. 동경으로 유학 갈 여건이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최정희는 이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와 춤을 함께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에 들어간다. 졸업 후 보육교사로 활동하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일 년 만에 조기졸업을 하고 가수의 길로 나간다. 작곡가 전수린을 찾아가 노래를 배우고, 시인 박팔량의 도움으로 방송에 데뷔하였다.

나는 음악도 좋아하고 운동도 즐겼다. 농구선수로서 올림픽대회에 나간 일도 있다. 그땐 외국에 가지 않고 경성 운동장에서 했지만, 문학은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무용이 아니면 음악을 할 생각이었다. 영화를 보고 와선 거울을 앞에 놓고 여배우의 흉내를 내어 보았다. 남이 웃지 않는다면 여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다.

- 최정희, 「나의 여학생 시절」 -

그러나 방송활동은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경남 함안의 유치원에 취직한다. 함안에 있던 최정희에게 중앙보육학교 교장 박희도는 동경의 도가와[土川]무용연구소에서 유치원 유희를 더 배울 수 있게 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1930년 일본 동경에서 공부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미카와[三河]유치원에서 보모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극작가 김진수를 만나 '조선학생극예술좌' 에 참여하고, 연극과 신문예운동을 통해 유치진, 김동원 등을 알게 된다.

1931년 귀국 후 일본에서 만났던 연출가 김유영과 재회하게 되고 잡지사 사무실에서 조촐한 살림을 꾸린다. 얼마 후 아이가 생기지만 김유영의 사업이 실패하며 두 사람의 동거생활도 힘들어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때, 박희도의 추천으로 1931년 '삼천리사' 의 기자로 입사한다. 처음에는 집필자의 집을 찾아가 원고를 받아오거나 이야기를 듣고 원고를 작성해 글을 싣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차츰 직접 쓴 글을 기고하며 「정당한 스파이」, 「명일의 식대」 등의 소설을 썼지만 무용수나 음악가, 여배우를 꿈꾸며 살던 최정희는 여전히 문학이 자신의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원고지라는 네모 반듯 반듯한 바둑 무늬 속에 글자 집어 넣는 법을 배웠다. 사장은 원고지조차 다룰 줄 모르는 내게 그날 당장 산아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쓰라는 명령이었다. 나는 윤성상, 허영숙 씨 등이 써온 여기에 대한 글을 읽어가면서 그와 비슷한 것을 원고지 두 장에 베껴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에 붓대가 몹시 미끄럽던 일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 최정희, 「나의 문학생활 자서」 -



집필 중인 최정희

삼천리 기자로 활동하며 아들을 낳았지만 김유영과 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어머니로서 짊어져야 하는 책임만 늘어났다. 최정희는 자신의 상황과 고통을 후에 장편소설 『강물은 또 몇 천리』(1964)에 담았다. 당시 김유영은 문학과 예술을 통해 민족의 해방을 주창하는 카프(KAPF;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 기반의 극단 '신건설' 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1934년 전주 공연을 앞두고 일본은 극단 광고문구의 불온성을 문제삼아 관련 인사들을 검거하기 시작했고, 허울뿐이던 남편이 심문을 받으며 최정희를 언급하는 바람에 전주형무소에 투옥된다.

8개월 만에 전주형무소에서 나와 1936년 시인 이은상의 소개로 조선일보사에 입사하고, 자하문 밖 허름한 초가집의 건넌방에 세를 들었다. 작은 방에는 낡은 책상과 작은 탈바가지 한 개가 고작이었지만 감나무 사이에 드문드문 피는 배 꽃과 사과 꽃이 아름다운 집이었다. 정릉 근처 암자에서 요양하며 『동백꽃』, 『따라지』 등 작품을 발표하고 있던 소설가 김유정과 시인 이상이 종종 이 집을 찾아오곤 했다.

최정희는 이곳에서 쓴 「흉가凶家」(1937)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이전에 몇 편의 소설을 발표했지만, 문학이, 자신 스스로가, 인생을 구원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쓴 첫 작품이었다. 그러나 '흉가' 라는 작품이름 때문에 '남의 집을 흉가로 만들었다' 는 집주인의 타박으로 세 든 집에서 쫓겨난다. 살 곳을 잃고 전전하던 중 1939년 다시 '삼천리사' 로 자리를 옮겨 김동환과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작가의 삶을 시작한다. 첩살이, 이혼, 사생아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까지 시선을 돌려 그동안의 경험과 고통을 작품 속에 형상화했다. 김유영과 사이에 난 아들을 시댁에 빼앗긴 참담함과 가부장제도 속에 남편의 친권만 인정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글의 바탕에 깔렸다. 초기 작품 활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지맥地脈」, 「인맥人脈」, 「천맥天脈」의 '삼맥三脈' 시리즈 속 주인공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었다.



삼천리사 재직 시절
(왼쪽부터 이광수, 이선희, 모윤숙. 최정희, 김동환)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쏟아 놓아야만 시원할 것 같아서 쓴 것이다.…「지맥」을 시작하던 날 새벽에도 그래서 붓을 들었다.

- 최정희, 「문학적 자서」 -

경기도 덕소에서 첫 딸을 낳고 시골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중일전쟁에서 수세에 처한 일본은 지식인들을 전쟁에 동원시켰다. 최정희와 김동환은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데, 이 때문에 후에 친일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해방을 맞은 후 서울 동숭동으로 이사한 최정희는 덕소 이웃들처럼 해방이 된 후에도 가난과 무지함으로 여전히 수탈당하는 농민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 「풍류 잡히는 마을」, 「우물 치는 풍경」, 「점례」 등을 발표했다.

한국전쟁 때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혼란스러운 정세에 휩싸이고 만다. 서울로 밀려들어온 북한군은 문인들을 '인민의 피를 빨아 먹는 문학을 한 죄' 로 잡아 심문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정희는 '문학가동맹' 에 가입하지만, 얼마지 않아 정세

가 바뀌어 북한군이 쫓겨나고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다. 문단에서는 서울에 남았던 '잔류파'와 피난을 갔던 '도강파'를 구분 짓고 서로의 잘못을 따져 등급을 매겼다. 이번에는 '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부역을 한 죄'로 고초를 겪게 된다. 최정희처럼 피난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많은 문인들이 상처를 입었고, 더러는 남편 김동환처럼 1·4 후퇴 때 북으로 끌려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최정희는 살아남기 위해 채원과 지원 두 딸을 데리고 대구로 향했다. 1951년 1월, 마해송을 단장으로 한 공군의 '창공구락부'가 결성되었다. 시인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구상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정희는 유일한 여성 문인이었다. 종군작가로 박영준, 장덕조, 최인욱 등과 김영수가 쓴 문인극 〈고향사람들〉의 여주인공을 맡아 서울, 부산 등지를 순회하며 공연하였다. 대구 출신 시인 이상화, 고월 이장희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구의 종군작가단이 만든 예술 강습학원 '상고尙古예술학원'에서 문학 강좌를 맡기도 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한 문인들이 있어 힘든 전쟁을 겪을 수 있었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은 자신이고, 문학만이 자신을 지탱해준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생계를 위해, 외로움을 달래고 현실을 견디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학에 매달렸고, 남편을 북으로 떠나보낸 슬픔과 남과 북 양쪽에서 받은 고통을 「정적일순」, 「찬란한 대낮」 등에 그려냈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인간사」에서는 한국전쟁에서 4·19사태에 이르는 시기를 배경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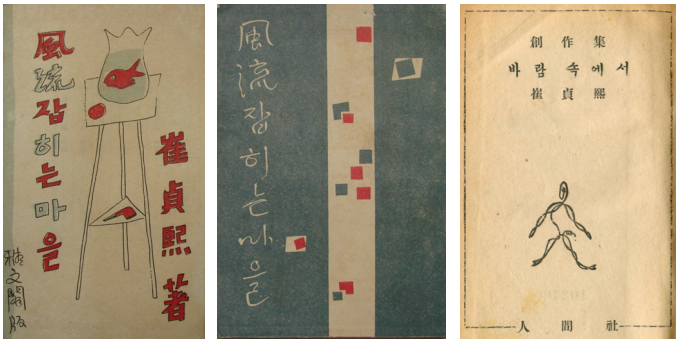
최정희가 활동을 시작한 1930년대는 여성문인의 문단 진출이 본격화되던 시기이다. 노천명, 모윤숙, 이선희, 최정희는 한국여류문단 4인방으로 서로 가깝게 지냈다. 날마다 어울려 다니면서도 매일 편지를 나누었

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찾고, 눈이 오면 누이 온다고 서로 찾는' 것으로도 모자라 누군가의 집에서 밤을 지새우며 문학이야기, 세상이야기, 사랑이야기를 나눴다. '얘기를 위해서 사랑을 했던 것 같은' ■ 시절이었다. 하루는 술을 마시고 취한 박진의 지팡이를 이헌구와 김광섭이 끌어주며 나란히 걸어가던 모습을 시인 조애실이 보고 우스워하며 붙인 '줄봉사' 라는 별명이 문단에서 회자되었고, 매일같이 함께 다니던 여류 4인방도 줄봉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유쾌한 성격의 최정희는 문인들의 술자리나 놀이판에 자주 어울렸다. 삼천리사에 있을 때 '누구보다 노래를 많이 알고 잘한다' 는 소설가 박태원과 노래시합을 벌인 일도 있었다.

그가 그치면 내가 부르고 내가 그치면 그가 불렀다. 이렇게 하기를 수 시간 뒤에 그는 패배를 자인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노래를 알고 있는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노래가 달리기 시작하자 '엄 복동이야, 조 수만이야' 하고 소리를 쳤다. 그게 무슨 노래냐고 말하니까 장충단 공원에서 엄 복동이와 조 수만이가 자전거 경주 할 때 부르는 응원가라고 대꾸하면서 하늘을 향해 아주 크게 웃었다. 그것뿐 아니라 제일고등보통학교 교장 선생이 학생들에게 훈시하는 흉내까지 털어놓았으나 그것으로써도 따라 낼 수가 없었던 까닭에 '모리낭아' 다과점에 가서 푸팅을 내었다.

- 최정희, 「조광 · 삼천리시절」 -

소설가 박종화는 담인淡人이란 호를 지어주었고, 김동리 · 손소희 내외, 이효석, 박계주, 백철, 박연희, 조연현 등 많은 문인들과 문학 행사나 모임에서 친분을 쌓았다. 화가 김환기와 수필가 김향안 부부와도 각별하게 지내며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다. 김환기는 최정희의 책 『사랑의 이력』, 『풍류 잡히는 마을』, 『바람 속에서』의 표지그림을 그려주었다.



김환기가 그린 『풍류 잡히는 마을』(1949), 『바람 속에서』(1955) 표지

서교동 후생주택에 우리가 살던 때 화백은 홍익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고, 살림집도 바로 근처여서 화백 내외하고 내왕이 잦았었다. 화백은 종종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혹은 혼자서 담장 밖에서 아주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 미닫이를 열어 제치고 내다보면 화백은 우리 마당 안의 해바라기보다 훨씬 더 올라간 키를 담장에다 걸놓곤 궁구부정하니 마당 안을 들여다보며 '광야' 같다고 말했던 것이다.

- 최정희, 「산」, 1975 -

1970년대 서교동에서 정릉으로 이사를 했다. 한국전쟁 이후 생긴 무허가 주택들 사이에 솟은 아파트였다. 베란다에 서면 허름한 집들 사이로 난 작은 길이 갈래갈래 이어진 모습이 내려 보이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주변을 두른 높은 절벽과 개천이 만들어 낸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비가 쏟아지는 여름이면 폭포처럼 물이 흘러 큰 물소리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1970년대 《현대문학》에 추천으로 등단한 김지원, 김채원 두 딸은 최정희를 닮아 문인들과 잘 어울렸다. 두 자매와 함께 이제하, 서영은, 오정희 등의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최정희의 정릉 집에 자주 모였고, 문단에서는 이들을 '정릉클럽' 이라 불렀다.

정릉에 있는 동안 「산」, 「탑돌이」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죽음에 대한 담담한 시각을 내비치던 최정희는 1990년 12월 21일 정릉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암울했던 시기 여성으로 겪었던 굴곡진 삶 속에서, '여자란 아내,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의 자립적인 인격체' 임을 문학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최정희. 유쾌한 성격과 사교성으로 문단에서 사랑받았던 한 여성으로서 최정희의 모습은 정릉 시절의 추억을 함께 만든 벗 '정릉클럽' 의 에세이집 『그들이 떠난 행복의 피난처』에 담겨 전하고 있다.



정릉 집 서재에서

최정희

1906년 함경북도 성진 출생
1928년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1930년 일본 미카와[三河] 유치원에 일하며, 조선학생극예술좌에 참가
1931년 삼천리사 기자, 「정당한 스파이」 발표
1937년 《조광》에 「흉가」 발표
1969년 한국여류문학인협회장
1970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1990년 작고

대표작품

『흉가』, 『인맥』, 『천맥』, 『풍류 잡히는 마을』, 『바람 속에서』, 『인생찬가』, 『별을 헤는 소녀들』, 『인간사』, 『찬란한 대낮』, 『탑돌이』 등

상훈

여류문학상(1964), 한국예술원 본상(1972), 3.1문화상(1982)

계용묵

桂鎔默, 1904~1961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난 계용묵(본명 하태용河泰鏞)은 엄격한 할아버지 아래 자라 논어 · 맹자 같은 한학을 배우던 중, 열여섯 살에 우리나라 최초의 문예 동인지인 《창조》를 읽고 소설가의 꿈을 꾼다. 신학문 배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할아버지 몰래 서울로 올라와 학교에 들어가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 고향집에 있는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를 모두 구해 읽고, 세계문학전집을 섭렵한다.

1925년 단편소설 「상환」과 시 「봄이 왔네」로 《조선문단》을 통해 등단하였다. 문장과 구성, 내용에서 정확하고 세밀한 기교를 중요시 했지만 문단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5년 《조선문단》에 실린 「백치 아다다」가 평단의 관심을 끌고, 실감나는 심리묘사, 간결한 문장과 짜임새로 뛰어난 단편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후에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1938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조광》과 《여성》 등에 작품 십여 편을 발표한다. 해방 후에도 출판사와 잡지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신문연재소설 「별을 헨다」(1946), 단편소설 「바람은 그냥 불고」(1948) 등을 썼다. 이 시기에는 조선출판문화협회, 한국문학가협회 등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최정희, 조연현, 김동리들과 교류하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951년 제주도로 피난을 갔다. 제주항 서쪽에 있는 삼도동에 집을 얻고, 연고도 없는 곳에서 아내와 양담배를 팔며 생활

비를 마련하였다. 그 상황에도 피난 온 작가들은 칠성로에 있는 동백다방에 모여 예술을 이야기하고, 제주도 문화계와 교류하였다. 1952년 9월에는 계용묵이 주축이 되어 종합잡지인 《신문화》가 나왔고, 이듬해에는 동인지 《흑산호》가 간행되었다. 신문사와 출판사에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발휘한 것이다. 이때 계용묵과 함께 활동한 문인이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이후 제주도 문단을 이끄는 작가가 되었다.

피난 후 서울로 올라온 계용묵은 정릉 입구 개천가의 아홉 평짜리 재건주택을 마련하였다. 파란 대문이 눈에 띄는 집이었다. 아끼던 책을 전쟁 중에 많이 잃어버려 서재라 할 것도 없는 작은 방이었지만 한쪽에는 책을 쌓아두고, 한쪽에는 원고지를 펼쳐놓고 글을 썼다. 소설가이자 언론인, 출판인, 번역가로 활동한 계용묵은 1961년 「설수집」을 《현대문학》에 연재하던 중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버스를 타고 미아리고개를 터덕이며 넘다가 길음교를 접어들 때 시선이 왼편으로 쏠리게 되면 바로 눈 아래 시멘트 기와를 인 무슨 목장지대 같은 납작한 건물들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골 안 일대에 지질펀펀하게 깔려 있음을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이다. … 환도 후에 집 잃은 전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베풀어진 그 수 삼백칠십이나 나마 세이는 소위 아홉 평짜리의 정릉 재건 주택이다. … 명색이 양옥이라 입주자들은 이 양옥에 상부한 생활이어야 한다고 마치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내 집의 미화에 저마다 여념이 없다. … 나도 이 풍속에 휩쓸려 들어서 하늘빛 뺑키(페인트)로 대문을 단장하고 뜰에다는 라일락 한 그루와 장미 한 그루로 이 미화의 공동 보조에 인색하지는 않았으나 내 마음은 울타리 안에 보다는 울타리 밖으로 늘 쏠린다. 바로 집 뒤를 끼고 흐르는 개천, 이 개천가에서 날이면 날마다 진종일을 연이어 가며 후닥거리는 여인네들의 빨래방망이 소리, 이 소리가 풍기는 민족혼의 고유한 정서, 이 정서에 나는 살이 지고 싶었고…

- 계용묵, 「내가 사는 주변」, 1957 -

박고석
朴古石, 1917~2002

'산의 화가' 라 불리는 박고석은 대동강이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고, 산세가 절경을 이룬 평양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보통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한 모범생이었지만, 중학교 때는 공부 보다 수영, 스케이팅, 농구 같은 운동과 영화, 문예잡지를 섭렵하는 한편 미술부 활동을 하며 자유롭게 지냈다. 평양의 목단봉, 보통강, 기자도, 능라도 등지로 그림을 그리러 다니고, 방학 때면 기숙사를 아틀리에 삼아 데생 연습에 매진, 미술 공모전에 응모하여 실력을 가늠해보기도 했다. 선배 화가 길진섭은 자신만만하게 그림을 가져온 박고석의 작품을 날카롭게 비평하고, 데생 지도를 해주었다. 실력을 자만하지 않고 그림실력을 키워갔지만, 건축을 한 둘째형의 영향과 현실적인 삶을 택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학 전공은 건축을 선택한다. 그러나 1년도 버티지 못하

고 미술과로 전공을 바꾼다. 졸업 후 일본에서 동창들과 '격조전格調展' 이라는 단체전을 열고, 1943년 도쿄에서 개인전을 연다. 한때 만화영화제작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기도 했는데, 이때 '코주부' 캐릭터를 만든 화가 김용환과 함께 일했다.

해방이 된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1·4후퇴 후 군대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트럭 짐칸을 얻어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전국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고, 서울 명동의 다방 대신 광복동 밀다원, 에덴다방이 예술인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박고석은 노점에서 중고 시계를 팔기도 했고, 부산공고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다. 때로 신문에 한 컷짜리 그림을 그려 얼마간 돈이 생길 때도 있었다. '너무나 뼈저린 많은 고난' 을 겪은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김환기, 장욱진, 김병기, 정규 등 부산에 내려와 있던 화가나 김종문, 김수용 같은 문학인들과 활발히 교류한 시간이기도 했다.

당시 국립박물관도 광복동 경상남도 관재청 건물로 옮겨 와 있었다. 피난 온 작가들이 전시장이 없어 휘가로다방이나 르네상스다방 같은 곳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을 보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박물관에서는 '현대미술작가전' 을 열어 전시공간을 제공했다. 박고석은 김환기, 정규, 이중섭 같은 화가들과 친분이 있고 전시를 주관한 국립박물관 학예관 최순우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다. 1952년 두 번째 개인전을 휘가로다방에서 열고 〈가족〉, 〈범일동 풍경〉 등 20점을 전시하였다. 또, 그해 겨울에는 르네상스다방에서 한묵, 이중섭, 이봉상, 손응성과 같이 '기조전其潮展' 을 개최해 〈서울C〉, 〈저울〉, 〈눈 오는 날〉 등을 발표하였다.

부산 피난에서 돌아온 뒤 신설동 초가집에 살다가 1955년 정릉동으로 이사를 한다. 약사암 셋방살이 끝에 잘 알던 어른이 땅을 마련해주어 20만 환을 들여 재목材木을 사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열 평 남짓한 집을 지었다. 집 주변으로 이백 평쯤 되는 뜰에 꽃과 푸성귀를 키우는 재미가 도시에 살 때는 모르던 자연 속 삶을 즐기게 해주었다. 여름에는 더위를 씻고, 겨울에는 얼음 깬 물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시냇물이 집 옆으로 흘러 식구들끼리는 '자가용 시냇물' 이라 불렀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정릉 집에서는 가을이면 그 나름으로 휘황하다고 할 정도로 나무마다 색색 단풍으로 물드는 잎사귀들을 보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판잣집은 틀림없으나마 제법 내 집이라서 그렇고 뜰이 한 이백 평 남짓하니 아이새끼들의 마음대로 뛰노는 꼴도 제법이요 금년에는 코스모스를 비롯하여 국화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의 꽃을 즐길 수 있어 십상 좋다. 이리하여 시내에서 쫓겨난 팔자치고는 상팔자로 봄이 오면 살구꽃, 복숭아꽃이랑 제법 흥취를 돋우어 주며 여름철에서 가을까지는 가지, 토마토, 오이, 호박을 비롯한 김장거리까지 싱싱한 야채가 내 손으로 가꾸어지며 이루어지는 재미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 박고석, 「단풍은 무르익고」, 1958 -

정릉 시절 서라벌예술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출강하며 돈암동 전차 종점 근처에 작업실을 두고 그림을 그리거나 찾아오는 학생을 가르쳤다. 얼마 뒤 고대의상연구가인 아내 김순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자 박고석은 서울대학교 병원 건너편에 있던 원남동 화실에서 거의 지내다시피 하였다. 정릉 집에는 박고석의 지인들이 머물며 아이들과 가족같이 지냈다.



〈정릉리 풍물〉, 1958

부산 피난 시절 화가 김병기의 소개로 만난 이중섭은 박고석이 부산공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살던 판잣집에서 같이 지내며, 근교로 스케치를 다녔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이중섭은 늘 박고석을 찾아왔고, 정릉집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이중섭과는 둘도 없는 친구인 시인 구상도 자연히 어울리게 되었고, 구상을 통해 고은도 만났다. 오랜 친구인 한묵도 프랑스로 가기 전 정릉에 머물러 인연을 이어나갔다.

이중섭은 부산에서 잠시 나의 집에 있기도 했다. 나는 당시 부산공고에서 일 년 정도 선생을 한 일이 있고, 그때 학교 앞 개천가에 밥집 겸 다방을 하느라고 판잣집을 두 채 지었다. 그 가운데 한 채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 밥은 같이 먹고 잠은 그곳에서 자게 했다. 그가 이북에서 피난 올 때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그림도구와 개털옷 한 벌뿐이었다. 그는 이부자리도 없이 그 개털옷을 깔고 잠을 자야 했다. 우리 둘은 매일 화구를 들고 변두리로 스케치를 나갔다. 주머니에는 지금 돈으로 오백여 원이 항상 들어 있었다. 점심은 항상 막걸리 한 잔에 깍두기였다.

- 박고석, 「명사교류도」 -



내설악에서 박고석, 고은, 한묵, 1975

1957년, 기존 화단의 활동과 다르게 순수한 현대 회화운동을 펼치고자 '모던아트협회' 를 만들었다. 유영국, 한묵, 황염수, 문신, 천경자들과 1960년까지 여섯 차례 협회전을 열어 현대미술을 선보였다. 이후 1960~70년대에는 김종휘, 박항섭, 정규, 최영림 등과 개성 있는 표현을 중요시하고 미술사조에 얽매이지 않는 활동을 펼친 '구상전具象展' 을 이끌었다. 이들은 추상과 구상 사이에 있는 작가들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데, 기존의 흐름에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로 전시와 함께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열었다.

서구적인 궤적에 대한 동경, 선망이나 동양적인 유산 속에 도취, 자부하는 개념 위에 먼저 절박하고 진지한 현실과 대결하는 용기와 경건한 주체의식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새롭다는 것은 그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풍토와 체질 위에 각기의 모습으로 꽃피는 것이며 그 꽃이 찬란하거나 고귀하거나 소박하거나 화려하거나 간에 각기의 모습과 존재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 박고석, 「풍토성과 전통문제 태동하는 새로운 미술운동에 부쳐서」, 1958 -

박고석은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분야를 막론하고 예술인들과 생각을 나누었다. 명동 목동다방과 광화문 아리스다방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아지트였다. 아리스다방에 늘 오던 시인 김수영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겠다고 마포 집에서 닭 두 마리를 잡아 박고석이 사는 정릉 집까지 걸어온 일도 있었다. 일본대학교 선배인 화가 김환기, 이종우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의지하고 지냈으며, 동선동에서 홀로 작업하며 지낸 조각가 권진규는 아끼는 후배 예술가였다. '고바우' 캐릭터로 유명한 김성환과는 1950년대 정릉에 이웃해 살아 통금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그림 얘기를 하곤 했다. 처남인 건축가 김수근이 1961년 일본에서 돌아와 우리 문화를 더 배우고자 했을 때는 친구 최순우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우리나라 첫 건축잡지인《공간》과 원서동 공간사옥 지하에 있던 '공간사랑' 에서 벌였던 전시, 공연, 낭송회 등 여러 문화활동은 박고석, 최순우, 김수근에게서 시작되었다.

한편, 정릉에서 지낸 시기인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천승세 「점례와 소」, 이무영의 「계절의 풍속도」, 박경리의 「노을진 들녘」, 홍성원의 「따라지 산조」 등 신문 연재소설의 삽화를 그렸다. 박고석은 삽화에 대해 '일종의 주제화라할까 그림인 동시에 작품의 전개에 따라 변화와 강조를 생각하는 등 하여간에 재미있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짧게는 4화부터 길게는 300회가 넘는 연재소설의 삽화를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글을 쓰는 작가도, 소설을 읽고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삽화가도 마감에 쫓기기 마련이었다. 시간이 촉박할 때는 기자가 작가의 집까지 찾아가 원고를 받아오거나 작가가 직접 신문사로 원고를 가져다주었다. 정릉 이웃인 박경리가 쓴 「노을진 들녘」의 삽화를 그릴 때는 황달까지 앓아 몸져누울 지경에도 달필로 삽화를 그려냈다.

오랜 활동 기간에 비해 개인전이나 단체전 횟수가 많지 않아 작품을 적게 그리는 작가로 알려졌지만, 늘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신문 연재소설 작업 초기인 1959~60년에는 김기창, 우경희, 한봉덕들과 삽화가 동인회를 만들어 삽화 전시에 참여했고, 1960년대 말에는 김종문, 강인섭 등 시인이 쓴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린 시화전을 여러 차례 여는 등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박고석이 좋아하는 소재는 '자연' 이었다. '산의 화가' 라고 불릴 만큼 산을 좋아하고, 산 그림을 많이 남긴 그는 1950년대 말부터 주말이면 가까이는 북한산, 도봉산, 멀리는 설악산, 지리산을 찾았다. 부산에서 연 개인전 이후 20년 만에 1974년 도봉산과 설악산의 사계四季를 그린 작품으로 '공간사랑' 에서 전시를 연다.

산행을 나서는 것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어 버렸다. 사시사철 가림이 없이 나의 마음은 항시 심산유곡 아지랑이 속을 헤맨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짜임새로 꽉 짜인 자연의 오묘함을 감히 화폭에 옮길 생각은 엄두도 못 낸다. 산은 수려하면 할수록 그 수려함으로 해서 어떠한 저항 같은 것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 내 나름대로의 우둔한 붓자국을 남기고 싶은 마음. 오늘도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저 당당한 산세 앞에 서서 나는 허술한 화필로 격한 나의 마음을 달래 본다.

- 박고석, 「내가 좋아하는 소재2」 -

1978년 정릉동에서 동소문동으로 이사한 다음해 도봉산에서 바위를 타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다. 몸이 좋지 않았지만 산과 그림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고 재기하여 네 번째 개인전에서 북한산, 백암산, 내설악, 외설악 등 25점을 발표하고, 고희를 앞둔 1986년에는 신작 15점을, 1994년에는 서울과 부산의 화랑에서 판화전을 개최한다. 고희를 넘은 나이인 1990년 화업 50년을 결산하는 화집을 내고, 전시를 열며 수채화 신작과 스케치를 함께 발표하였다.



〈설악산〉



박고석은 한국 사람들의 소박하고 진지한 정신적 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보고, 어떤 소재든 '살아 숨쉬는 생물' 처럼 느껴지는 작품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화가 자신이 받은 감동을 굵고 활달한 필치로 화폭에 담아 보는 이까지 그 감동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늘 오르는 산에서도 스케치 할 시간에 산을 보고 느껴야 한다던 그는 1983년 처남 김수근이 설계해 지은 명륜동 집 아틀리에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림을 그린다. 5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화가로 산 그의 그림은 땅 기운을 품은 산이 되고, 꿈틀거리는 산맥이 되었다.

박고석

1917년 평양에서 출생
1935년 일본대학 예술학부 입학
1940년 동경에서 '격조전' 창립
1943년 첫 번째 개인전 개최(동경), 만화영화제작부 근무
1952년 피난지 부산 피가로다방에서 개인전 개최,
르네상스다방에서 '기조전' 창립 동인전 개최
1954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전임강사
1956년 서라벌예술대학 미술과장
1967년 '구상전' 창립
196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자문위원, 대한미술협회 이사
2002년 작고

대표작품

〈범일동 풍경〉, 〈바닷가 인물〉, 〈부산〉, 〈소〉, 〈비 온 뒤〉, 〈가지〉, 〈백암산〉, 〈도봉산〉, 〈외설악〉, 〈쌍계사 가는길〉 등, 화문집『그림 · 글 박고석』

상훈

대한민국 문화예술상(1984), 은관문화훈장(1987)

한묵, 이중섭, 고은

1950년대는 박고석, 이중섭, 한묵, 고은이 정릉에 머물렀다. 이중섭과 한묵은 1940년대 강원도 원산에서, 박고석과는 부산 피난 시절에 만났다. 박고석과 한묵이 정릉에 살 때 삼선교에 있던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중섭이 나와 한묵의 하숙집에 합류하였다. 시인 구상의 소개로 박고석을 알게 된 고은은 1959년부터 2년 간 박고석의 집에 머물렀다.

1955년으로 기억되는데, 묵이 내가 사는 정릉 골짜기로 이사를 왔다. 손수 끓여먹는 것에 진저리가 나서 하숙을 했다. … 1955년 중섭이 성 베드로 병원을 퇴원하면서 이곳으로 가담해 왔다. 어지간히 지치기도 했던 외로운 사람끼리 벽 하나를 사이에 둔 하숙생활이다. 묵과 중섭과 같이 살면서부터 더욱 그 주변은 두터운 정과 뜨뜻한 기가 오고가는 친구들이 적지 않게 정릉 골짜기로 모여들었다.

- 박고석, 「인간 한묵」 -

한묵韓默(본명 한백유)은 1914년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 가와바타미술학교에 유학하였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부산 피난 시절 '기조전' 에 참여하고, 1957년 발족한 모던아트협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홍익대학교 교수로 안정된 생활을 하던 중 새로운 예술세계를 찾아 1961년 프랑스로 건너가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4차원의 공간감을 평면에 구현하였고, 유화, 수채화, 판화, 콜라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다.
1973년 박고석, 김수근, 최순우 등의 도움으로 도불渡佛 12년 만에 '공간사랑' 에서 판화를 전시한 이후 여러 차례 한국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3년 프랑스에서 100세 기념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대표작으로 〈나선〉, 〈공간〉, 〈번개탑〉 등이 있다.

이중섭李仲燮은 1917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났다. 오산고등보통학교와 일본문화학원에서 그림을 공부하였다. 서양화의 구도와 화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완성하였으며, 대표작으로 〈흰소〉, 〈투계〉, 〈사내와 아이들〉 등이 있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하여 종군화가단, '기조전' 등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부터 캔버스나 물감을 구하지 못하면 송곳이나 연필로 담뱃갑에 붙어 있는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다. 전쟁 후 서울로 올라와 개인전(1954, 미도파화랑)을 열고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으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인들의 집을 떠돌며 지내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1956년 생을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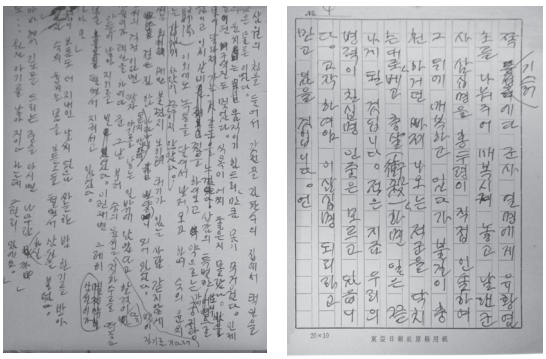
박고석이 정릉의 화실을 비워두고 원남동 건물 4층에 넓은 화실을 두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정릉은 완전히 내 차지였다. … 아직 나는 정릉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 박고석의 화실 한 채에는 두 개의 커다란 방이 있었다. 한 방은 한국일보의 주간부장 서인태가 쓰고 있었는데 그는 홍릉에서도 나와 함께 커다란 하숙방에서 살던 술친구였다.

- 고은, 「나의 산하 나의 삶」 -

고은高銀(본명 고은태)은 1933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기 입산하였으나 《현대시》에 「폐결핵」으로 등단(1958)한 후 10년 만에 환속하고 문단에서 활동하였다.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와 민주화에 관심을 가져 1970년대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만들고 문학을 통한 현실참여 운동을 벌이다 가택연금과 구속을 당하기도 하였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등장인물 5천 6백여 명, 4천 편이 넘는 시를 엮어 『만인보』 30권을 발간하였다. 소설 『화엄경』, 『정선아리랑』, 산문 『고은통신』, 『두 세기의 달빛』, 전기 『이중섭평전』, 『한용운평전』, 『고은전집(총38권)』 등 1백 5십 권이 넘는 책을 냈다.

하촌 박연희
霞村 朴淵禧, 1918~2008

함경남도 함흥의 산촌에서 태어난 박연희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시인 윤동주와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 된 용정 대성중학교에 진학해 우리 역사와 문화, 언어를 배웠다. 학교를 다니며 역사인식을 키웠고, 일제에게 핍박받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글에 담겠다는 의지를 가졌다. 그러나 집안사정으로 학교를 마치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 과수농사를 도와야 했다. 사회에 나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길 원했지만 책으로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해방이 되었고, '함남민주청년회' 에 들어가 독립한 조국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박연희의 바람과 달리 현실은 소련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을 받았고, 이에 월남을 결심한다.



친필원고

내가 1918년에 태어났으니, 너무나 불행한 시대였다. 그리고 너무나 암울한 시대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나는 그 암울한 시대를 좀처럼 잊을 수 없다. 어쩌면 그 암울한 시대에서 받은 영향력이 나의 문학의 일부 성격을 모름지기 형성시켰는지도 모른다.

- 박연희, 『주인 없는 도시』 -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이 1951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사건이 일어난다. 한국전쟁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 독재체제를 강행하는 정권을 향한 불만이 커졌고 문인들은 글로써 대항한다. 1952년 창간된《자유세계》는 자유당 정책을 비판하는 잡지로 야당의 정치지도자였던 조병옥이 중심이 되어 편집장에 임긍재, 편집위원에 박연희, 주요섭 등이 참여하였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잡지에 잇달아 관여하며 박연희는 자신의 정치의식을 반영한 소설을 발표한다. 대표작 「증인」(1956)은 자유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서 해고된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하숙을 들인 학생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범으로 몰려 고초를 당하는 이야기이다. 자유당의 독

재체제에서 인권마저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공주의만이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소설에서는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불안한 사회를 꼬집었다. 이 작품은 '대담할 정도로 정치문제에까지 파고든 작품'■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정치적 비판의식을 여과 없이 담아냈다.

월남할 때 데려온 딸이 소녀가 되고, 그 아래로 사남매가 태어났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 1960년 가을 적선동에서 정릉동 289번지로 이사를 하였다. 시인 조영암이 소개하였는데, 집 아래로는 배 밭이 펼쳐져 과수원집이던 고향을 떠올리는 풍경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었다. 'ㄱ' 자 모양인 작은 초가집 바깥에는 나무판으로 담을 쳤고, 뒤로는 삼십 평 남짓한 다락밭이 있어 감자, 옥수수, 묘목 따위를 심었다. 안방과 첫째 아들이 쓰던 작은방 사이에 부엌이 있고, 박연희가 서재로 쓰는 건넌방과 안방 사이에는 마루가 있었다. 마당에는 이웃인 「순애보」의 작가 박계주가 선물한 문조 한 쌍이 지저귀고, 때가 되면 대추와 모과가 무르익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정릉 집으로 이사 온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다.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고 사서 들었다. 무허가 초가집이었다. 이사 오던 해에 새로 지붕을 이었다. 이틀 후엔가 비가 와서 함츠르르 젖어 낙수 물이 떨어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고향을 생각했다. 그렇게 시골 냄새가 풍기고, 하루 종일 햇볕이 드는 남향 밭이여서 아늑했다. 집 앞으로 감자 밭이 길게 가로 질러 있는 사이를 우리 집으로 출입할 수 있는 오솔길이 있었다. 뒤꼍은 아예 담도 없었다. 아름드리 소나무와 밤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소박하나 집에 달린 밭이 꽤 넓었다. 이북 고향에다 두고 온 과수원 어느 언저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다웁게 생각되었다.

- 박연희, 「아이들과 과일나무」, 1981 -



시인 김소운의 집에서(박연희, 김소운, 구상), 1984

박연희는 호탕한 성격에 술과 친구를 좋아해 집에 찾아오는 이가 많았다. 시인 김수영, 황염수가 오는 날이면 정릉골짜기에서 닭백숙을 안주삼아 밤을 새며 이야기 했다. 『북간도』의 작가 안수길 내외는 친척처럼 가까이 지냈다. 함남 원산에서 유년기를 보내 '월남작가클럽' 에서 만난 시인 구상은 오랜 시간 각별하게 지낸 친구였다. 박연희가 천주교 영세를 받을 때 대부가 되어주고, 큰아들이 혼인할 때 주례를 섰다.

정릉동으로 이사한 후에도 동아일보에 다니면서 소설 「고향」(1959), 「개미를 쌓은 성」(1962) 등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가난하고 피폐한 사회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작중 인물들은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상을 그려내고, 작가의 시각을 대변했다. 박연희는 계속해서 자유당과 군사정권의 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민주주의와 시민정신을 지향했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문학조차 검열의 대상으로 여겼고, 1962년 동아일보의 연재소설 「여수旅愁」의 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자인 박연희를 문책했다. '우리나라가 신탁통치를 받았더라면 중립국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등장인물 송진우의 발언 때문이었다. 권고사직으로



정릉 집 서재에서

동아일보를 떠난 후 소설가 염대하의 주선으로 '한국전력 공보실'에 들어갔다. 「여수」의 작가 박계주는 필화사건 후 경제적 궁핍과 연탄가스 중독으로 4년 뒤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 사건으로 군인과 마주칠 때마다 불안감,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낀 박연희는 결국 특별요양소 근무를 지원해 강원도 화천으로 떠난다.

내가 60년대, 한국전력에 취직을 하고 있을 때 일이다. 나한테는 무척 괴로웠던 시절이었다. 끝내는 견디다 못해 인사부에 자원하여, 한전에서 경영하고 있던 화천요양소 현지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두메산골이어서 누구나 가기를 꺼렸던 곳이다. 게다가 결핵환자들을 다루기가 여간 까다롭지가 않다는 것이다. 서울에다 식구를 둔 채, 고생을 하러가는 심정으로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어느 진눈깨비 내리던 날.

- 박연희, 「잊혀지지 않는 일들」 -

붓을 꺾고 산골에서 생활하던 중 화가 김환기를 통해 알게 된 수필가이자 '정음사'의 창간자인 최영해의 도움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쓴 작품을 모아 첫 소설집 『방황』(1967)을 발간한다. 이후 직장 생활을 접고

정릉 집으로 돌아와 역사소설 집필을 시작한다. '역사를 통해 현대를 조명하는데 역사소설의 뜻이 있다' 고 생각한 박연희는 '통치자가 백성을 배신하면 민중항쟁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과 자문을 받아 1970년대 중반부터 『홍길동』, 『하촌일가』 등 장편역사소설을 발표하였다.

아마 1967년 초라고 기억된다. 뜻밖에도 어느 일요일, 영해 선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미 발표된 작품 중에 단편집 한 권이 될 분량을 갖고 만나자고 했다. 어리둥절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하다. 좋은 시절이 돌아올 때 까지 펜을 잡지 않으리라고 마음먹고 문학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조병화 시인하고 갔었던 영해선생의 혜화동 자택을 찾았다. … 그해 9월에 나의 첫 소설집 '방황' 이 한국 단편문학선집에 끼어 정음사 판으로 출판되었다. 그저 암울한 시절이었다. 그 암울한 시절에 '방황' 이 햇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출판을 계기로 영해 선생이 매번 불러 단 둘이서 온갖 낚시터로 돌아다녔다.

- 박연희, 「낚시터를 방황했던 최영해」 -

글을 쓰는 틈틈이 취미로 소설가 오영수, 손진섭, 시인 조병화 등 친구들과 소양강, 충주호 등지로 낚시 여행을 다닌다. 낚시를 다니며 겪은 일화를 조선일보와 《월간 낚시》에 연재하면서 문단에서 알아주는 낚시꾼으로 통해, 명륜동에서 정릉동으로 이사 온 아동문학가 마해송은 낚시를 즐기는 박연희에게 '주작' 낚싯대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사 온 지 두 달 만에 마해송이 세상을 뜬 것을 아쉬워하며 〈증贈 마해송 선생〉이라는 글씨를 새겨놓고 간직하였다.

1983년 정릉 생활을 정리하던 박연희는 청수장 맞은편에 있는 손가정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설 『전락』을 발표한다. 이 작품을 끝으로 불광동

으로 이사하여 200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황제』, 『송도의 봄』 등의 장편 역사소설을 집필하고, 친구들과 낚시를 즐겼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어디까지나 내 분신이면서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믿고 싶은 떼어 놓기 어려운 정'■이라고 한 박연희. 그는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사회가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올바로 나아가길 바라며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보듬으며 작품으로 사회에 말을 건 작가이다.

언론통폐합이 끝나 군사정권이 나치즘을 닮아가고 있을 무렵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시절 언론말살정책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동결돼 작가들도 글쓰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역사소설을 통해 오늘의 사회를 조명해보고자 이 작품을 썼다. 어느 시대든 인간해방이 문학의 길이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인간적인 민주주의를 뜻한다. 통치자가 백성을 배신하면 민중항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역사에 나타난다.

- 박연희의 말 -



집필 중인 박연희

박연희

1918년 함경남도 함흥 출생
1946년 《백민》 기자, 단편 「쌀」로 등단
1948년 《대조》 편집국장
1950년 《문학》 편집국장
1952년 《자유세계》 편집위원
1957년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1962년 한국전력 공보실 편집차장
1977년 한국문인협회 이사
1981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1983년 한국소설가협회 대표위원
2008년 작고

대표작품

『삼팔선』, 『고목』, 『증인』, 『방황』, 『탈출기』, 『무사호동』, 『홍길동』, 『하촌일가』, 『밤에만 자라는 돌』, 『황제』, 『민란시대』, 『송도의 봄』 등

상훈

대한민국예술원상(1983), 3.1문화상(1996), 은관문화훈장(2004)

낙초 금수현
1919~1992

가곡 〈그네〉의 작곡가 금수현은 경상남도 김해 대저면에서 태어났다. 고향마을은 낙동강 강물에 쓸려온 모래와 흙이 삼각주를 이루어 평야가 만들어진 곳이다. 마을사람들은 물과 흙이 만든 땅에 기대어 살았고, 아이들은 강변 갈대밭의 바람소리를 들으며 커갔다. 금수현은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의 땅콩 밭이 있는 강변 모래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강바람과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어떤 연주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음악가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은 대저국민학교 3학년 때였다. 학예회 이중창 무대에 설 가수로 금수현이 뽑혔고, 방과 후에 담임선생님 지도로 연습한 노래를 학예회에 선보였다. 무대에 서서 받은 큰 박수와 칭찬은 가슴 벅찬 경험을 안겨 주어,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그 해 낙동강이 범람하여 땅콩농사가 큰 피해를

입고, 보리밥조차 빚을 내어 먹어야 할 만큼 어려운 생활에 처하였다. 가족들은 부산 제2상업학교에 다니던 금수현이 은행에 취직해서 생계에 도움을 주길 바랐다. 이 무렵 몇 년 만에 일본에서 돌아온 숙부를 환영하기 위한 마을잔치가 열렸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숙부는 서투른 바이올린 솜씨로 일본민요 한 곡과 아리랑을 연주한 후, 축음기를 틀었다. 그동안 눈으로만 보았던 악보 속의 음률을 생생한 연주로 들은 첫 경험이었다. 한참동안 음악에 빠져있던 금수현은 음악학교에 진학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오 솔레미오〉, 〈산타루치아〉 등 이탈리아 민요 레코드와 악보를 구해 공부를 하고,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피아노가 있는 학교 친구 집에서 독학으로 연주 연습을 하였다.

일본으로 간 금수현은 신문배달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며 자신의 힘으로 동경 동양음악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하였다. 다양한 과목을 통해 음악이 '추상적인 예술이 아니라 과학적인 학문' 임을 깨달았을 때,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음악이 학문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작곡과가 따로 없어 성악과에 들어갔지만, 작곡 수업을 들으며 아리아 〈심봉사의 탄식〉을 졸업 작품으로 발표하였다. 이 곡으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지만 중일전쟁의 여파로 혼란에 휩싸인 일본을 떠나 1941년, 4년간의 동경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귀국 후 부산극장에서 독창회를 갖고 노래극을 만들어 김해 · 마산 · 통영에서 공연을 한다. 이듬해에는 부산 동래고등여학교의 음악교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남여가 내외를 하던 당시에는 미혼남자를 여학교 교사로 채용하기를 꺼려해, 6개월 안에 결혼하기를 바랐다. 음악가를 배우자로 삼고 싶어 했던 금수현은 동료 여선생의 친구가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도 잘 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관심을 갖게 된 금수현은 학적부에서 소개 받은 전혜금의 사진을 찾아보고 연락이 닿길 기다렸다. 그러던 중 친구를 따라 소설가 김말봉의 집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그네의 산실에서 아내와 큰아들 나라

인연이었는지 김말봉이 인천에 교사로 있는 딸이라며 보여준 사진 속 여성이 바로 전혜금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말봉의 소개로 두 사람은 1943년 가을 부산에서 혼례를 올렸다.

지인의 별장 한 채를 빌려 신혼살림을 꾸리고 첫 아들을 낳지만 폐렴으로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아이와 백일 간의 짧은 인연을 기억하기 위해 금수현은 「1백 5일의 인생」이란 시를 지었고, 부부는 음악을 통해서 당시의 아픔을 이겨냈다. 해방을 얼마 앞두고 동래에 있는 양옥집으로 이사를 했다.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고 한 일본 식민지 정책의 영향으로 해방이 되었는데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노래가 없었다. 금수현은 〈8월 15일〉, 〈새노래〉를 작곡하여 알렸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죽음의 쇠사슬 풀리고 자유의 종소리 울린 날' 로 시작하는 행진곡 〈8월 15일〉을 불렀다. 또, 윤이상, 김호민 등 음악교사 서른 명과 '노래하자회' 를 만들어 부산 미국 공보원과 문화원 등지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매주 한곡씩 노래를 가르치는 '국민개창운동' 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해방 전 서울로 올라가 몇 년 간 중단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한 장모 김말봉이 하루는 부산으로 딸을 보러 왔다. 사위가 작곡한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대견했던 김말봉은 같은 예술가로서 함께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금수현은 흔쾌히 장모가 불러주는 시조에 맞춰 즉석에서 작곡을 했다. 이렇게 완성된 곡이 그네 타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듯한 노랫말과 민요풍 가락으로 지금까지 애창가곡으로 불리는 〈그네〉(1946)이다.

스물 여섯이라는 젊은 나이로 부산항 공립고등여학교(지금의 경남여고) 교감을 맡은 금수현은 한글교육에 뜻을 두고 자신의 성을 '김金'에서 '금'으로 고쳐 읽었다. 일제강점기에 핍박받은 우리말을 올바로 되살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해방 후 태어난 아들 이름도 '뿌리'라고 지었지만 한글 이름을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관례에 막히고 만다. 어쩔 수 없이 한글 이름이지만 한자가 있는 '나라'로 이름을 고쳤다. 한국 사람이 우리말인 한글이름을 쓸 수 없는 현실에 분개하며 언론에 호소하고 정책을 바꾸려는 목소리를 높였다. 금수현의 주장이 공감을 얻어 둘째아들 난새부터 누리, 내리, 노상까지 4남매는 한글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네〉 기념우표, 1992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 나부낀다.
제비도 놀란 양 나래 쉬고 보더라
한번 구르니 나무끝에 아련하고
두 번을 거듭하니 사바가 발 아래라.
마음의 일만근심을 바람이 실어가네

김말봉 시, 금수현 곡, 〈그네〉, 1946

또한, 음악교과서 『음악글』을 순우리말로 만들어 보급하였다. 그 전에는 제대로 된 음악교과서가 없었고, 음악용어는 외래어를 그대로 들여다 쓰고 있는 형편이었다. '음악용어 제정위원회' 에서 활동하며 '오선' 은 '다섯줄' , '소절' 은 '마디' , '음부기호' 는 '음자리표' 등 한자말을 우리말로 바꾸는데 힘을 쏟았다. 이런 노력으로 교과목 중에 음악용어가 가장 먼저 한글화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과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 음악인들과 '경남음악협회' 를 만들어 해방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악콩쿨을 열고, 《음악주보》(1946)를 만들었다. 경남도립극장의 극장장으로 있을 때는 매월 '희망음악회' 를 열었는데, 관객들이 원하는 신청곡을 음악가들이 연주했고, 원하는 사람은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일반인들이 조금 더 음악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극장을 개방하고 유명한 연주자를 초대해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주고자 한 것이다. 극장의 인기가 높아지며 정기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극장 소속의 음악극단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을 모아 '새들예술원' 을 만들고, 악보 보는 방법과 발성법 등 기초부터 가르쳐 공연을 올렸다.

교육자로서 학교 교육 전반에 관심을 가졌던 금수현은 교과서 개정, 수업 방식 개선 등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수현이 고안한 '이동식학습안' 은 각 과목마다 특성화된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는 새로운 방식이었고, 1953년 교장으로 부임한 경남여중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1957년에는 우리말을 보급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문교부 편수관으로 서울에 올라온다. 정부가 주장한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적는 한글간소화' 에 반대서명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시골로 발령을 받은 지 1년만의 일이었다. 편수관으로 국정교과서 편찬, 외래어 간판 한글화 등 올바른 우리말을 알리려는 활동을 계속하며, 음악용어사전과 인명사전 출판에도 참여한다.

1966년에는 '영필하모니관현악단'을 창설한다. 잠시 정치계에 몸담으며 국회의원에 출마까지 했지만 실패하면서 몇 달 동안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던 중이었다. 이웃에 이사 온 작곡가 정윤주는 금수현을 찾아와 관현악단 창설을 제안하였다. 당시에는 시립교향악단과 KBS교향악단뿐이어서 음악을 전공한 젊은 연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적고, 한국 작곡가의 곡이 공연되는 기회도 드물었다. 금수현은 우리나라 음악계를 활성화시키자는 결심을 하고 관현악단의 이사장을 맡는다. 음악교육을 바로잡으려 음악 교육과정에 국악을 넣고, 일반 대중이 건전한 음악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운동도 펼쳤다.

이즈음 부산 집에 세를 들어 살던 사람의 제안으로 정릉동 논 300평과 부산 집을 바꾸었다. 살고 있던 용두동보다 교통이 불편하긴 했지만 5남매가 자라면서 넓은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였다. 건축비가 없어 고민하던 금수현은 혼자 건축 책을 보며 설계 도면을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방한과 방온, 방습, 방음을 위해 이중벽을 고안하여, 시멘트 벽돌을 쌓은 바깥으로 공간을 두고 빨간색 벽돌로 벽을 한 번 더 쌓았다. 아이들도 힘을 합쳐 집 앞의 개천에서 모래를 퍼다 나르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었다. 이때는 정릉천의 물과 모래를 이용해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벽돌을 사거나 직접 만들어 썼다. 넓은 거실을 중심으로 동·서로 방 4개를 두고, 거실과 각 방들 사이에는 공기구멍을 만들어 바람이 통하게 했다.

우리는 용두동 집을 팔기로 하고 정릉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우리 땅 옆에 2미터정도의 개천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종의 기적이 일어난다. 약간의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개천위에 왕모래가 두자쯤 쌓인다. 시멘트벽돌을 찍기에 안성맞춤이란다. … 나로서는 처음 짓는 집이라 연구를 안 할 수 없다.

- 금수현, 「왕모래집」 -

집이 완공되고 정릉 생활을 하며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는 것을 알고, 남은 땅에 유치원을 짓기로 하였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유치원 건물을 지었고, 1968년 결혼 25주년 기념에 맞춰 완성된 '금잔디유치원' 에서 부부는 은혼식을 올렸다. 시조 작가 이은상 선생이 주례를 맡고 국어학자 최현배 선생이 축사를, 테너 박인수가 금수현이 작곡한 〈구름〉을 불러주었다. 5남매는 부모님의 은혼식을 축하하는 무언극無言劇을 공연했다.
음악가가 만든 유치원답게 금수현이 원가園歌를 짓고, 어머니들을 위한 노래도 만들어 함께 불렀다. 결혼으로 교사를 그만두어야 했던 아내는 유치원 일에 의욕을 보여,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부부동반 모임까지 열어 이웃과 화합하고 문화와 예절을 가르치는 데 힘썼다.

유치원이 지금 45회 졸업생이 나갔으니까 거의 50년이야. … 오페레타를 지어서 아이들이 연극을 하는 거야. 피터팬같이. 하도 이뻐서 KBS에 교섭을 해서 어린이 시간에 우리 유치원이 전부 가서 오페레타도 하고. 정릉 지역은 애정을 가지고 계몽을 한 곳이에요. 금수현이 즉석에서 곡을 만들고 가사를 적어가며 유치원을 얼마나 도왔다고. 지역사회. 어머니 모임 뿐 아니라 아버지 모임도 하고, 또 연말에는 가족모임. 부부모임 등. 참 재미있게 지냈어요. - 아내 전혜금의 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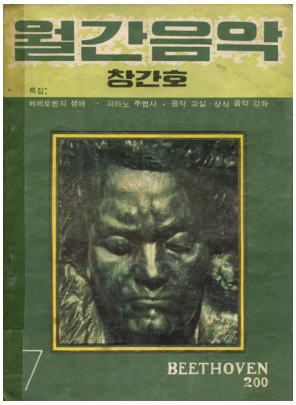
금수현은 음악을 널리 전하려는 뜻을 세우고, 전문 음악잡지가 거의 없던 시절《월간 음악》을 만들었다. 친구의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아두고 시작한 일이었다. '음악교실' , '상식 음악 강좌' 등을 실은 창간호가 1970년 7월에 발간되었다. 금수현은 창간사에서 '이 땅의 음악지의 역사가 항시 불행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땅에 풍성한 생활과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 차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잡지 발행에 힘을 쓰는 한편 몇 몇 지인들과 힘을 모아 음악가들의



손수 지은 정릉 집

창조 공간이자 음악제를 열 수 있는 '안골음악촌'을 진해 바닷가 언덕에 열었다. 음악촌에는 여름이면 음악가들이 찾아와 작곡과 연주연습을 하였고, 금수현도 이곳에 머물며 후배 음악인들과 교류하며 곡을 썼다. 《월간 음악》 발행비를 조달하느라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도 음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모교인 대저초등학교의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피아노를 기증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망설임 없이 졸업 동문을 대표하여 선뜻 나섰다. 연습할 피아노가 없어 고생했던 자신의 경험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월간 음악》의 원고와 외부청탁 수필, 음악인 인명록 발간을 위해 한 달에 3백장이 넘는 원고를 작성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건강이 나빠질수록 '작곡가로서 오페라 한 곡을 남기겠다'는 목표가 뚜렷해졌다. 오페라 주제는 신라의 해상무역왕 '장보고'였다. 장보고의 활동무대를 수 십 차례 답사하고 극중 이름 하나까지 정확하게 고증하려 자료를 거듭해서 검토했다. 대본을 쓰고, 해마다 1막씩 만들어 7년만인 1991년 연주시간 2시간 10분, 총 3막으로 구성된 561쪽의 악보를 완성



《월간 음악》 창간호, 1970. 7

하였다. 그러나 〈장보고〉가 공연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92년 건강 악화로 생을 마감한다. 그해, 고향의 강변 제방에는 아들 누리가 조각한 〈그네〉노래비가 세워졌고, 2013년에는 부산에서 살던 집 뒤에 '금수현음악살롱' 이 세워졌다. 금수현이 손수 짓고 작품 활동을 한 정릉집과 금잔디유치원은 45년 전 모습 그대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음악의 전당으로 남아있다.

금수현

1919년 부산 대저면 출생
1940년 일본 동양음악학교(현 동경음악대학) 졸업
1945년 부산 경남여자고등학교 교감
1947년 경남도립극장 극장장
1953년 경남여자중학교 교장
1957년 문교부 편수관
1965년 영필하모니악단 이사장
1968년 금잔디유치원 설립
1970년《월간 음악》발간
1982년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회장
1992년 작고

대표작품

가곡 〈심봉사의 슬픔(아리아)〉, 〈그네〉, 〈구름〉, 〈파랑새〉, 〈완화삼〉, 〈고향산천〉, 〈안골포〉, 오페라 〈장보고〉, 동요 〈오리〉, 〈나의 집〉 등

상훈

녹조훈장(1960), 외솔상(1981), 옥관문화훈장(1992)

금나라, 금난새, 금내리, 금누리, 금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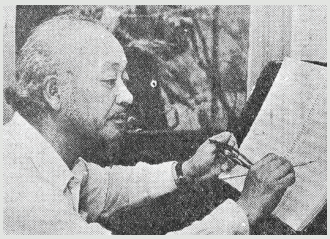
우리글 사용에 남다른 뜻을 두었던 금수현은 자녀들에게도 한글이름을 지어 주었다. 첫째아들 금나라(1945~1974)는 1974년 팝뮤직을 중심으로 한 대중음악전문지인 월간《스테레오》를 창간하였다. '톱' 을 활로 문질러 연주하는 특색 있는 활동을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29세에 세상을 뜬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휘자로 성장한 둘째아들 금난새(1947~)의 이름은 '나는 새' 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이름이다. 1977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국제 지휘 콩쿨' 에서 입상한 뒤, 33세 때 최연소 나이로 국립교향악단의 전임 지휘자를 시작으로 직접 창단한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까지 국내외를 넘나들며 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막내아들 금노상(1953~)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에서 지휘를 전공하고, 광주와 인천시립교향악단을 거쳐 현재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 상임지휘자로 있다. 금수현 〈그네〉 노래비의 조각을 맡은 셋째아들 금누리(1951~)는 파리 국립공예응용미술학교에서 금속조형을 전공한 후 '금누리 글꼴' 을 만들고, 한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하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 딸 금내리(1949~)는 프랑스에서 유기화학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금수현의 예술적 감수성과 재능을 이어받아 자신의 길을 걷는 자녀들과 금잔디유치원에서 자라는 새싹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부인 전혜금 여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 선율처럼 흐르고 있다.



정릉 집 거실에서 찍은 가족사진

김대현

金大賢, 1917~1985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로 시작하는 동요 〈자전거〉를 지은 작곡가 김대현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며 음악에 관심을 가졌고, 함흥 영생중학교 1학년 때인 1933년에 습작으로 〈자전거〉를 작곡하였다. 가사는 아동문학가 목일신이 보통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던 경험을 시로 쓴 것이다. 또 다른 대표곡인 〈자장가〉는 아동문학가 김영일이 붙인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소록 소록 잠들라' 라는 노랫말로 널리 알려졌지만, 원래는 김대현이 작사 · 작곡한 노래이다. 일본 제국고등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친구들의 부탁으로 만든 곡이었다. 친구들이 만든 연극에서 불린 뒤 잊혔다가 새로운 가사와 함께 불리면서, 음반이 발매되고 중학교 음악교과서에도 실렸다.

1950년에 월남하여 창작오페라가 거의 없던 시절 부산극장에서 1952년 오페라 〈콩쥐팥쥐〉를 공연하여 주목을 받았다. 종합예술인 오페라는 솔리스트와 합창, 오케스트라, 극의 흐름까지 고려하여 작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영화음악 작곡자로 활동하며 영화 '이차돈' 과 '맹진사댁 경사' 등에 참여하고, 서라벌예술대학(현재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67년에는 작곡가 금수현과 함께 '새음악 연구원' 을 만들어 국악을 현대화하고, 알리는 데 힘썼다. 1970년대 북한산 자락아래 대문도 울타리도 없었던 정릉동 소박한 양옥집(803-2번지)으로 이사하여 작고할 때까지 동요 1백여 곡과 가곡 60여 곡, 성가곡 30여 곡을 남겼다.

석재 조연현
石齋 趙演鉉, 1920~1981

함안군 봉성마을의 유지이자 재력가였던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조연현은 어린 시절부터 시골 선비들의 풍류를 보고 들으며 자랐다. 사랑채 넓은 마루에는 늘 할아버지를 찾아온 손님들이 모여 바둑을 두거나 시를 읊곤 했다. 어른들 곁에서 심부름을 하며 본 사랑채 풍경은 어린 마음에도 멋스러움이 느껴졌다. 조연현도 어른들처럼 공부방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을 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동네에 극단이 오면 한동안 연극을 흉내 내고, 영화상영이 끝나고 나면 유리판에 그린 그림을 벽에 반사시켜 엉터리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무명시인이나 풍수쟁이들이 한두 달씩 사랑방에 묵어갈 때에는 몇날 며칠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 지냈다. 그 무렵 숙부가 읽던 탐정 소설을 몰래 읽는데 재미를 붙였고, 점차 시와 소설, 문학 전 분야로 눈을

넓혔다. 영어단어를 공부하기 보다 시를 외우거나 문학책을 읽었고, 학교에 가는 것 보다 영화관에 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1933년에는 함안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온다. 처음 들어간 보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동중학교에 편입하는데, 이때 김광섭 시인을 담임으로 만난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반대하는 담임선생님에게 제재를 가하는 학교 풍조가 싫어 자퇴를 하고 다시 배재중학교로 편입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옥중기』에 빠져들어 마음에 드는 구절을 연애편지에 담기도 하고, 소설을 흉내 내어 '고독의 형벌' 이란 글을 써보기도 했다. 당시 신문 학생란에는 대학생들의 작품이 발표되었는데, 중학생인 조연현의 글도 자주 지면에 실렸다. 이때 동인지 《아芽》와 《시림詩林》을 만든다. 우리글을 쓰지 못하게 할 때 국문 잡지를 낸 조연현은 이를 계기로 문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교정 북쪽의 성벽 위에 서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어제 읽은 책의 감동을 조용히 되새겨 보는 것이 그때의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때때로 노우트에 적어 둔 한두 편의 시가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되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었다. 이러한 나의 위안과 즐거움은 결국 동인잡지를 만드는 대담한 행동에까지 발전되었다

- 조연현, 「나의 중학시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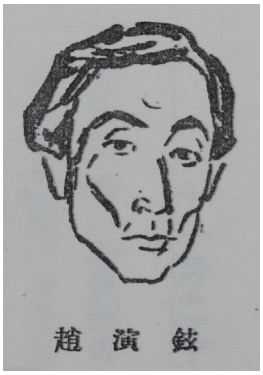
배재중학을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도 생각해보았지만, 청년들이 전쟁에 징집당해 희생되는 것을 보며 학교도 공부도 의미 없는 일이라고 느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주로 떠난다. 그러나 1년 동안의 자유로운 생활 끝에 남은 것은 시간을 허송했다는 후회와 혼자만 뒤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었다. 조연현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중앙불교전문학교(지금의 동국대학교)에 입학한다. 입학과 함께 문예부의 책임을 맡는 한편, '조선문학연구회' 를 만들었다. 이듬해 입학한 정태용과 조진대, 조영암, 이병

철 등과 뜻을 모아 '조선문학연구회' 의 이름으로 시낭독회를 열었다. 일본의 교육정책을 따르고, 일본인 학장과 교수진이 운영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따로 만들고, 우리말을 쓰는 행사를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학교 측에서는 연구회를 해체하고 문예부 주최로 시낭독회를 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반발한 연구회 회원들은 준비한 시가 아닌 '나는 오줌을 누고 싶어도 오줌 눌 장소가 없다', '나의 얼굴은 식민지처럼 말랐다'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낭송했다. 이 때문에 조연현은 학우들과 함께 유치장에 갇히고, 얼마 후 퇴교를 권고 받아 자진해서 학교를 나온다. 고향으로 돌아와 면서기를 하며 지내는 동안 김동리, 유치환, 정태용 등 경남 일대에 있던 문인들과 친분을 나눈다.
해방 후 동창 김영태가 자금을 대어 명동 한 곳에《예술부락》의 사무실을 내고 조연현에게 주간을 맡긴다. 당시 교류하던 주변 문학청년들의 글을 모으고, 서정주 시인에게 글을 받았다. 시 한 편, 소설, 평론 한두 편뿐이었지만 우리말로 쓴 문학에 대한 호응인지 이십여 일 만에 1만부가 팔렸다.《예술부락》을 계기로 유치환, 박용구,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등의 젊은 문인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들의 교류는 1946년 '청년문학가협회' 로 이어진다. 청년문학가협회는 발족 후 시, 소설, 평론 등 문학의 각 부분에 대한 보고강연을 하였는데, 이때 평론 분야를 맡을 사람이 없었다. 협회에서는 조연현이 1947년 '조석동' 이라는 이름으로 경향신문 신춘현상에 평론「우리 문학의 성격」을 투고한 것을 알고 그에게 평론을 맡긴다.

해방 전부터 나는 조금씩 시를 써왔고, 해방 직후에도 얼마 동안은 시를 썼지만 해방 이후 점차적으로 나는 시에서 평론으로 아주 그 영역을 바꾸게 되었다. 이것은 내 취미나 기호의 탓에서보다는 해방 30년의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방 직후의 문단의 혼란은 새로운 이론을 요구했고, 좌우익의 대립이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

- 조연현,「나와 광복 30년」 -





청년문학가협회 단체사진(왼쪽에서 두번째가 조연현), 1940년대
백영수가 그린 초상화, 《문예》, 1950. 6

1949년에는 잡지 《문예》의 창간에 참여하며 주간을 맡았다. 조연현은 극우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치적 견해가 달랐거나 중도의 입장을 고수했던 염상섭, 계용묵, 최정희, 황순원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실었다. 《문예》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창간 1주년 기념특집을 준비하고 있던 중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바로 피난을 가지 못해 왕십리 친지 집에 숨어 지내다 몇 달 만에 국군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군인들이 조연현을 포위했다. '이 집에는 머리를 깍은 괴뢰군 패잔병이 숨어 있다' 는 이웃의 고발 때문이었다. 신분을 밝힐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의 초상화가 담긴 잡지를 증거로 혐의에서 벗어났다.

9.28 수복 후 피난 간 부산 광복동에서 김동리와 함께 사무실 간판을 달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문예》 전시판을 출간한다. 당시 문화계는 문학이나 미술, 음악 분야를 막론하고 서로 교유하였는데, 화가들은 책

의 삽화나 표지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조연현은《문예》의 표지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화가 남관, 김환기, 도상봉, 장우성, 천경자, 박노수, 서세옥들과 장정과 삽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이들과 교류는 조연현에게 다른 분야의 예술 감각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54년 통권 21호로 종간된《문예》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부족한 당시 천상병, 박재삼, 최일남 등 많은 작가들의 등단무대가 되었다. 전후 시기 우리 문단의 발판을 다지는 데 기여한 조연현은 서른네 살 젊은 나이로 최연소 예술원 회원이 되고, 숙명여대, 동국대 등 대학 교단에 선다.

1955년에는 소설가 오영수의 소개로 잡지《소년》을 발간하고 육영사업을 펼치던 사업가 김기오를 만난다. 새로운 월간지를 계획하던 김기오는 조연현의 설득으로 순수 문예지인《현대문학》을 발간하기로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조연현은 주간으로서 모든 결정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반영한 문예지를 만들었다. 편집장은 오영수, 편집사원은 시인 김구용, 박재삼이었다.《현대문학》은 발간과 함께 대표적인 문학잡지로 자리 잡으며 우리나라 최장수 문예지가 되었다.

서울 생활을 한 지 20여 년만인 1972년 정릉동에 이층 양옥을 마련한다. 정릉 주택지 조성이 막 시작될 때라 주변은 집 몇 채 뿐인 벌판이었다. 40여 평의 마당에는 사촌여동생이 준 향나무와 단풍나무를 시작으로 지인들에게 선물 받은 나무를 심었다. 음악평론가 박용구는 나무의 품목과 수량까지 정성스럽게 적어 보내주었고, 소설가 방기환은 아끼던 향나무를 선물했다. 시인 김규동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처럼 사색에 잠겨 있는 모양의 향나무를 가져와 심으면서 "이 나무는 생각이 많은 나무입니다"라는 재미있는 풀이를 해주었다. 마당 한 편에는 옛



정릉 집 서재에서

선비들이 즐겨 키우던 파초를 한 그루 심어, 더운 여름 싱싱하고 넓은 잎이 자라는 걸 보는 것을 즐겼다. 또, 7~8평 되는 차고 위에 작은 밭을 만들고 화초와 푸성귀를 키웠다. 처음 차고를 지었을 때는 장독대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였는데, 한 잡지에서 외국의 '옥상정원' 기사를 보고 나름대로 작은 텃밭을 만든 것이다.

요새 우리 집을 찾는 손님이 있으면 나는 먼저 이 옥상 농장을 새마을을 시찰시키듯 구경시킨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 얻은 상치를 대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와서 부러운 것은 오직 그것뿐인양 선망의 눈길을 보냈다. 남에게 보여서 부러워할 만한 아무것도 가져 보지 못한 나에게 남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 "나도 농장을 가졌다." 이것이 최근이 나의 보람이요, 자랑이다.

- 조연현, 「옥상농장」 -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던 조연현은 일본, 동남아 등지를 다닐 때면 신기한 소품들이나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영화테이프를 사왔다. 집안

곳곳에는 수집한 소품, 평생을 두고 본 서책, 문화예술인들과 친분을 나누며 받았던 작품이 있었다. 정릉 집에는 문인들과 바둑을 즐기던 지인의 출입이 잦았다. '하루도 바둑을 안두는 날이 없을 정도' 로 바둑을 좋아했던 조연현은 이종환, 정태용, 김윤성들과 이층 서재에 모여 천장이 까맣게 그을릴 정도로 담배를 피우며 바둑을 두곤 했다. 공휴일에는 '삼일절, 광복절 배杯' 라고 이름까지 붙여가며 바둑 대항전을 열었다.

문예지 주간으로서, 교육자로서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해 힘썼던 조연현은 1981년 회갑 기념으로 외국 여행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다. 지금도 정릉 집에는 지인들이 선물한 나무와 그가 글을 썼던 서재가 그대로 남아있고, 조연현을 기리는 동상과 표석이 세워졌다. 1982년 '조연현문학상' 이 제정되어 탁월한 조직력으로 광복 이후 30년의 문단을 이끌면서 신진작가들을 양성하고 지원한 그의 뜻을 잇고 있다.



정릉 집, 마당에 놓인 표석과 동상

조연현

1920년 경상남도 함안 출생
1940년 혜화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 시낭독회 사건으로 자퇴
1947년 민중일보, 민주일보 기자, 민국일보 문화부장 겸 사회부장
1948년 《문예》 창간, 주간
1955년 《현대문학》 창간, 주간
1961년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등 출강, 동국대 전임교수
1970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위원장
1973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1976년 현대문학사 사장
1979년 동국대학교 명예 문학박사 학위
1980년 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장
1981년 한국 잡지협회 회장, 일본 여행 중 작고

대표작품

『우리 문학의 성격』, 『문학적 산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 『문학과 사상과 인생』, 『문학과 그 현장』, 『한국현대문학개론』, 『한국현대작가론』 등

상훈

대한민국예술원상(1966), 국민훈장 동백장(1970), 3.1문화상(1972)

차범석
車凡錫, 1924~2006

목포 유달산 아래 북교동 184번지에서 태어난 차범석은 우리나라 연극계가 성장하는데 버팀목이 된 극작가이다. 어린 시절, 책을 읽거나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와 뛰어놀기보다 혼자 노래하고, 공연 때 보았던 최승희의 춤을 따라 추며 시간을 보냈다. 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연극에서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는 아이 역할을 한 뒤로 무대를 동경하게 되었다. 중학교를 마치고 일본에 가서 2년을 지내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일본군으로 강제 징집을 당해 제주도까지 끌려가고 만다. 곧 해방이 되고, 다른 학생들 보다 너덧 살이 많은 스물세 살에 연희전문학교(현재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차범석은 연극무대라면 가리지 않았고, 영화나 전시 관람, 문학인과 교류 등 예술 전 분야를 모두 섭렵하려는 열정으

로 가득 찬 대학시절을 보냈다. 염상섭이나 유치진, 이무영, 이해랑 등 문화계 중진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다. 대학 선후배들과 '극예술연구회'를 꾸려 극본가로, 연출가로, 배우로 연극에 참여했다. 1949년 유치진과 오영진이 주관한 제1회 전국대학연극경연대회에서 차범석이 연출한 〈오이디프스왕〉이 차석次席을 하고, 이를 기회로 연극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모임인 '대학극회'가 만들어졌다. 연희전문학교의 차범석, 김병규, 고려대의 김경옥, 최창봉, 동국대의 조효경들이 모여 희곡 낭독회를 주최하고, 연극을 발표했다.

문학이나 예술은 어디까지나 작가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독 연극은 한 공간 안에 모여 있는 관객 동시에 상대하는 예술이라는 개념파악은 먼 훗날까지도 나의 작업에 큰 견인력이 되었다.

- 차범석, 「나의 삶 나의 생각」 -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으로 '대학극회'도 무산되고, 회원도 흩어졌다. 아내의 패물을 팔아가며 버텼지만 형제들까지 거두어야 하는 살림은 곧 바닥이 나고, 타향살이를 더 버티지 못해 낙향을 결심한다. 그러나 전쟁은 넉넉했던 고향집에도 영향을 미쳤고, 목포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며 학교 사택에서 생활한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며 가난, 인간의 죽음과 맞대면 한 차범석은 스스로, 세상에 대해 단단해진다.

교사를 하면서도 연극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아 여러 지면에 꾸준히 희곡을 발표하고, 연출한 극을 무대에 올린다. 1951년에는 목포문화협회에서 주최한 예술제에 극본, 연출, 주연을 맡은 〈별은 밤마다〉를 공연한다.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서 공연한 차범석의 작품이었다. 전쟁 후에도 학교에 연극반을 만들어 연극을 가르치고, 학교 예술제에서 연극을 공연하며 3년을 더 목포에서 지낸다.



'제작극회' 야유회 때(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차범석), 1957

서른두 살, 늦은 나이에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분야에 당선, 목포 생활을 접고 서울로 돌아온다. 정식 등단만 늦었을 뿐 극본 집필과 연출을 하며 이미 연극계에서 활동력을 인정받을 때였다. 같은 해 대학극회 동인들과 우리나라 최초의 동인제 극단으로 소극장 운동을 주도한 '제작극회'(1956)를 만든다. 차범석이 번역한 〈사형수(원작: 홀 워시 홀)〉 공연을 시작으로 차범석 극본의 〈공상도시〉, 〈불모지〉 등을 공연하였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자리를 잡은 동네는 가회동이었다. 덕성여고의 교사로 일하면서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잠시 셋방살이를 했고, 왕십리, 신당동 전셋집을 옮겨 다니다 삼선동 21-1번지 작은 양옥집을 마련했다. 서울에서 처음 내 집을 장만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집값이 더 싼 정릉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정릉동은 목포 출신 문인인 박화성이 살고 있는 동네였다. 박화성은 친누나와 친구라 가족처럼 지냈는데, 차범석이 서울에 올라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사 자리를 알아봐주기도 하였다.

정릉4동 266-10번지, 마당이 있는 단층 양옥이었다. 넓어진 집 마당에 문주란, 연산홍, 동백 같은 좋아하는 꽃을 한껏 심고, 자녀들의 혼인 같은 기념할 일이 생기면 단풍, 대추, 포도, 은행, 라일락 같은 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다. 유럽에 다녀온 해에는 여행에서 본 사루비아 꽃이 인상에 남았다며 마당 가득 사루비아를 심기도 했다. 이 집에 사는 동안 5남매가 모두 혼인을 해서 살림을 나가고, 『차범석희곡집』 중 절반인 4권이 쓰였다.

어느덧 목련 꽃봉오리가 눈에 띌 만큼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몇 해 전에 육백 원을 주고 두 그루를 사다 심은 목련이다. 올 봄에는 두 그루의 목련 나뭇가지에 힘겨웁도록 꽃이 피리라고 생각하니 지금부터 나는 흐뭇해지기만 한다. … 잔디가 제대로 자라고 나무 잎사귀가 제 형태를 갖추고 장미가 잽싸게 피어나는 오월이 되면 나는 정원에서 식사를 한다. 아침식사의 즐거움은 뜰에서 할때다. … 새들이 머리 위 라일락 가지에서 노래를 부른다. 멀리 북악산 등성이가 바라다 보이는 뜰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면 나는 부러울 것이 없어진다.

- 차범석, 「아침식사」 -

서울로 올라와 십여 년 동안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 둔 뒤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마당 쪽으로 창을 낸 서재에서 평소에 떠오르는 소재나 상황을 스케치 해 두었다가 생각을 정리해가며 글을 썼다. 집필 시간인 밤부터 새벽까지는 예민해져서 식구들은 까치발을 들고 다녀야 할 만큼 조심을 했다.
글과 연극 밖에 모르던 그를 대신해 아이를 키우고 관공서에 가거나 집을 고치는 것까지 집 안팎일은 모두 아내 몫이었다. 차범석은 평생 휴대폰과 신용카드, 자동차 없이 살 정도로 무언가에 매이는 것도 꺼려했다.



정릉 집 마당에서 딸 혜영과

1980년대 중반까지 산 정릉 집은 연극 계통에 있는 사람이면 거의 다 와봤다고 할 정도로 손님이 잦았고, 설날이면 세배객이 집을 가득 채웠다. 끼가 많았던 차범석은 흥이 오르면 동석한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풍류를 즐겼다. 관심 폭이 넓은 만큼 화가 이만익, 무용가 이매방, 영화감독 김수용, 민속학자 이두현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나주 출신인 아내는 겨울이 되면 장독에 홍어를 삭혀 손님맞이 음식으로 준비해두었고, 갑작스럽게 오는 손님이라도 언제나 반겨 맞이했다. 차범석이 극단 대표로 아버지 같았다면, 차범석의 아내는 연극 의상이나 소품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연극 연습 중이나 연극이 끝난 뒤 음식을 해가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극작가이자 연출가, 극단 대표, 연극계의 중책을 맡으면서 일에 관해서는 엄격하였다.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인데다가 바른 말을 직설적으로 잘하여 차범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후배들이나 신인 배우들은 더욱 그러하였다. 지금보다도 예술이나 창작에 대한 인식

이 낮았던 때 극단을 꾸리고 관객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연극을 보는 사람도 드문 상황이니 돈이 모일 리가 없었다. 가난한 사정을 아는 배우들은 출연료를 받을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극단 연습실도 구하기 힘들어 사무실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며 연습을 하였다. 온 힘을 모아 만든 연극을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 평소 도움을 받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초대권을 보냈다. 그러나 관객은 좀처럼 오지 않았고, 연극을 보지 않는 관객을 '짝사랑' 하는 기분이었다.

같은 시대를 사는 관객과 호흡하며 시대를 반영하고 의미를 주는 연극을 하고자 차범석과 김유성, 오화섭, 임희재들은 1963년 극단 '산하' 를 창단하였다. 창단 다음해부터 차범석이 대표를 맡아 극단 설립 취지처럼 현실을 담은 창작극을 발굴하여 공연하였다. 운영위원을 두어 배우와 연출가가 연극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순회공연을 하며 관객과 만났다.
극단의 대표작은 차범석이 쓰고 연출한 〈산불〉(1966)이었다. 광주에서 1만 5천 명이나 되는 관객이 보러 올만큼 공연은 크게 성공하였다. 배우 이순재, 천선녀, 강부자 등이 활동하며 오학영, 윤대성, 최인훈 등의 창작극과 번역극을 선보였다. '산하' 는 어려운 상황에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연극계를 이끌었지만, 연극이 본래 역할과 의미를 잃고 진정한 예술로 평가 받지 못하는 풍토에 20년만인 1983년 자진 해산한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애정으로 대하되 예리하게 파헤치는 일만이 작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가려진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들추고 그래서 절망 아닌 힘을 부여하는 길이 작가의 책임이자 오늘의 연극이 나아갈 길이라고 믿었다.

- 차범석, 「나의 삶 나의 생각」 -

차범석에게 이 땅과 사람은 곧 연극이었다. 특히 '고향에서 내 육체가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고향이 나로 하여금 작품을 쓰도록 키워 주었고 그 속에서 영감과 신념과 긍지를 느끼게 했다'■ 고 할 정도로 고향은 떨어져 있지만 늘 같이 있는 곳이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밀주」, 대표작인 「산불」, 「갈매기떼」, 「학이여 사랑일레라」 등은 고향땅을 배경으로 집필한 작품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를 가리켜 리얼리즘 희곡작가니 리얼리즘연극의 파수꾼이라고 불러주게 되었다. 사실상 나의 초기작품인 〈밀주〉, 〈귀향〉, 〈산불〉, 〈불모지〉 등은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이었고 〈청기와집〉, 〈껍질이 째지는 아픔없이는〉, 〈갈매기떼〉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은 사회적 비리나 정치적 부패를 파헤치는 작품들이었다. 그리고 TV극 〈전원일기〉의 초기 1년간 집필도 같은 맥락이었다.

- 차범석, 「나의 삶 나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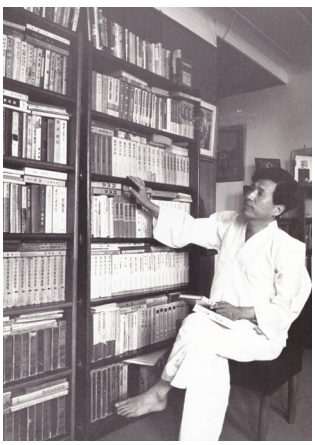
연극 〈산불〉, 1966

목포의 천석지기 집에서 태어나 보통학교 때까지 방학이면 목포에서 40리 떨어진 중등포 간척지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농장에 놀러가 농촌의 생활과 정情에 푹 빠져 지냈다. '물가에서 울어대는 맹꽁이 소리, 모깃불에서 피어오르는 보랏빛 연기와 마른 풀 타는 내음, 별똥이 사라져가는 밤하늘 쳐다보며 부르는 노래, 밭에서 갓 따온 참외며 수박의 싱그러운 미각,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도깨비 얘기를 듣다가 그만 평상에서 잠이 들어버리는' 추억이 깃든 농촌은 '맑고 향기롭고 구김 없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기억되었다.■ 후에 「전원일기」 극본을 부탁받았을 때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도시 생활만 한 자신이 어떻게 농촌 드라마를 쓰느냐고 하였지만, 어린 시절 경험과 리얼리즘 연극을 해온 차범석은 누구보다 1980년대를 사는 농촌의 모습을 잘 표현해냈다. 전 국민이 생각하는 '어머니' 상像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원일기」의 김회장 아내(배우: 김혜자)의 모습은 평생 자신과 극단의 내조를 한 차범석 아내의 모습이기도 했다.

차범석은 동랑 유치진의 영향으로 극작가의 길로 들어섰고, 유치진에 이어 우리나라 사실주의 연극의 맥을 이었다. 한국전쟁 때 고향으로 가는 19일 간의 피난길에서 죽음 앞에서는 상하 귀천도, 부자와 거지의 구분도 없음을 깨달았고, 20세기 격변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생생히 겪었다. 인간과 사회를 보는 매서운 눈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그는 연극에서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의 신념을 주장할 줄 아는 연극인이었다. 때로는 풍자하고 때로는 비판하며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 소외된 사람들과 우리가 처한 시대적 고뇌,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극을 만들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꿈하늘〉, 〈장미의 성〉 등 리얼리즘 연극을 대표하는 작품을 남긴 차범석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작품을 계속 집필

하였고, 50여 년간 소극장 연극운동 현장에 있던 경험을 담아 『한국소극장연극사』(2004)를 출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현대 연극이 자리 잡는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며 마지막까지 문화예술계의 어른으로 연극인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연극계의 앞날에 대해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평생 모은 책 3천 5백여 권과 연극 자료들을 고향에 있는 대학과 산울림 소극장에 기증하였고, 목포에서는 문학관을 지으며 늘 고향을 그리워한 차범석의 작품과 유품을 모아 전시하였다. 차범석이 세상을 떠난 뒤, 아내 박옥순이 유산을 정리한 돈을 연극인을 위해 내 놓아 '차범석연극재단' 이 설립되었다. 아버지를 이어 연극의 길을 간 큰 딸 혜영이 이사장을 맡아 창작극을 지원하는 '차범석희곡상' 을 만들고, 차범석의 연극정신을 이어 우리나라 연극계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천성이 가무와 신명을 마다하지 않으니 이 또한 나의 숙명이리라' 는 묘비명처럼 연극이 숙명이었던 연극인 차범석은 지금도 우리 연극계를 비추는 빛으로 남아있다.



정릉 집 서재에서

차범석

1924년 전라남도 목포 출생
1946년 연희전문대학교 문과에 입학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밀주〉 입선, '56년 〈귀향〉 당선 등단
1961년 문화방송 연예과장, 이후 제작부장, 편성부국장
1963년 극단 '산하' 창단
1965년 국제 P.E.N 클럽 중앙위원
1968년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사
1984년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장
1999년 '차범석 연극제' (대구), 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2000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취임, 한일문화인교류회 한국 대표
2006년 작고

대표작품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 『대리인』, 『산불』, 『통곡의 땅』, 『학이여, 사랑이여』
TV극 〈전원일기〉, 오페라 〈녹두장군〉, 〈산불〉 등

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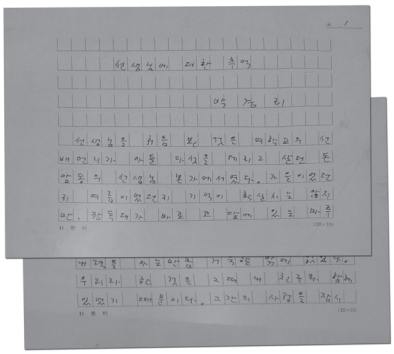
대한민국연극제 희곡상(1981), 연극상(1983), 대한민국문학상(1991)

정릉동 2013.12.26 3:32 PM 페이지80

박경리

朴景利, 1926~2008

한국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대작인 『토지』를 쓴 작가 박경리는 1926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다. '두 눈이 눈깔사탕같이 파아랗고 몸이 하얀 용이 나타난 꿈'■이 태몽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구멍지기'라고 혼날 만큼 수줍음 많고, 책읽기 좋아하던 조용한 아이였다. 진주여고를 졸업한 후 1945년 남편을 만나 혼인을 하고, 딸 영주를 낳는다. 남편의 근무지인 인천으로 올라와 헌책방을 하며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외국책부터 딱지본 소설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던 책을 마음껏 보는 즐거움을 누렸다. 1950년 황해도 연안여자중학교에 교사로 취직을 하게 되어 잠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중 한국전쟁이 터졌다. 남쪽으로 철수하는 마지막 배를 타고 가까스로 흑석동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인민군 치하에서 남편은 직장에 복



김동리와 만남을 회고한 친필원고

귀했고, 이 때문에 수복 후 부역 혐의를 받아 수감된 서대문형무소에서 세상을 뜬다. 좌우대립에 휩쓸려 남편을 잃고 정신적인 피폐함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현실을 잊으려는 듯, 글 속에서 현실의 한恨을 풀듯 글을 쓴다.

육이오에서 나는 강인한 생활력을 찾았다면, 그 후의 인간 문제에 있어서 나는 문학을 찾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느낌과 체험은 조금도 작품화 되지 못한 채 문단에 이름을 걸었는데 하여간 모든 가난함이, 설익은 것이기도 했지만, 문학 작업에 밀어 넣은 힘이 되어주었고 그 세계에 들어서게 했던 것이다.

- 박경리, 「창작의 주변」 -

고향 통영으로 피난을 가 수예점을 열고 어려운 현실을 버텼지만, 고향은 안식처가 되어 주지 못하였다. 서울로 올라와 얼마간 은행과 신문사에 다니며 틈틈이 글을 써서 다니던 은행 사보에 시 「바다와 하늘」, 단편소설 「전생록」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 무렵 진주여고 선배의 돈암동 집에 세를 살고 있던 친구가 박경리의 글을 선배 남편인 소설가 김동리에게 보일 수 있게 주선을 하였다. 김동리는 박경리가 가지고 간 시 몇 편을 읽고 '상은 좋은데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는 평가를 하였다.

당시 문단에 영향력이 있던 김동리는 박경리의 원고를 몇 편 더 읽어보고는 시보다 소설 쓰기를 권하였다. 박경리는 문인들이 자주 가던 다방 '문예싸롱' 에 다니며 소설가 모윤숙, 박화성 등 문단 사람들과 얼굴을 익혔고, 김동리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였다. 1955년 8월, 김동리는 박경리가 가지고 온 단편 「불안지대」를 「계산」이라는 제목으로《현대문학》에 추천했고, '경리' 라는 필명(본명은 박금이朴今伊)도 지어줬다. 은행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올라온 친정어머니와 아이를 돌봐야 하는 가장이 되어 돈암동에 식료품 가게를 차려 생계를 잇던 때였다. 스스로 '마음도 생활도 온통 가난했다' 고 할 만큼 고된 생활이었다. 때로 글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면 키우는 붕어가 유유히 곡선을 그리며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여유를 찾았다. 그러던 중 이웃에서 난 불이 번져 집과 가게가 타버리고 말았다. 아들을 사고로 잃고, 연이어 닥친 시련이었다. 근처 한옥집 셋방을 얻었지만 글을 쓸 때면 주인집과 이웃들의 소리에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라디오를 틀어놓아야만 했다. 절박함과 결핍, 응어리들이 자신을 채찍질하여 그 긴장감으로 글을 써나갔다.

온종일 글을 쓰며 보내는 내 방 동남쪽 창에선 산밖에 보이질 않고 남서쪽 창에선 빛바랜 붉은 기와 지붕, 블록담 그리고 능선 같은 언덕이 보일 뿐입니다만, 세상일들은 바람에 실리어 내 창문 앞까지 오는가 봐요.

- 박경리, 「서문이라는 것」 -

1950년대 후반, 청수장 아래 정릉 골짜기에 작은 양옥을 마련하여 이사를 했다. 산이 가까이 있어 산새 소리를 들으며,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집이었다. 셋방에서 주변 소음에 시달리며 글을 쓰던 때와 달리, 산골짜기 정릉에서는 복잡한 세상과 번거로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몇 년 뒤에는 다시 경국사 뒤쪽에 있

는 768-2번지로 집을 옮겼다. 이 집이 바로 『토지』 집필을 시작한 집이다. 그림이나 조각, 수예에도 손재주가 있던 박경리는 건축에도 관심이 많아 설계 도면도 그려보고, 집 구조를 바꾸기도 했다. 이사 후에 서재를 덧대 짓고, 석축을 손수 쌓고, 난간을 만들고, 마당에는 돌을 깔았다. 마당이 넓은 단층짜리 국민주택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닿았다. 동료, 선·후배 문인들이나 원고청탁을 하러 온 기자들이 자주 찾아왔고, 이 집에서 사위를 보고, 첫 손자를 키웠다.

놀러온 벗들이 내 방,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산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 소리 같아서 불안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늘 들으니까 불안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만 … 심산유곡이랄 것은 없지만 지대가 좀 묘하게 되어서 당분간은 판잣집이 들어설 염려도 없고 무슨 명함과 결탁하여 불하될 가능성도 없는 산이 내가 사는 집, 뜰 안에 있어 늦은 밤, 등 너머 절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탁 소리라도 듣는 때면 내 몸이 심산유곡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 박경리, 「어느 날의 망상」 -





정릉 집

1950년대 말에 쓴 초기 작품에는 전쟁을 겪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자전적인 모습이 글 속에 나타난다. 이 시기 작품은 대부분 1인칭시점으로 쓰여 작가와 등장인물, 독자의 거리가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이후 단편과 장편 소설을 문학잡지와 신문 등에 꾸준히 발표하고, 동인문학상, 내성문학상을 잇달아 수상하였다. 1959년 2월부터 《현대문학》에 연재된 「표류도」에 대해 선배 문인 박화성은 '1인칭소설이지만 작중인물의 개성과 심경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심각하게 묘사하였다'■라고 평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며 「내 마음은 호수」, 「노을진 들녘」, 「파시」 등 신문연재소설과 중단편을 발표한다. 점차 자전적인 글에서 벗어나며 박경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인물들을 통해 나타났다. 연재소설은 화가가 매 회 내용에 맞추어 그림을 그렸는데, 「내 마음은 호수」와 「노을진 들녘」은 박고석이, 「파시」는 천경자가 그렸다. 정릉의 이웃이었던 박고석과 함께 작업한 「노을진 들녘」은 작가가 5년 전부터 구상한 소설이라 사전에 20여 회가 나와 있었지만, 마감에 임박하여 완성된 글을 보고 순발력 있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재를 시작하며 '글에 맞는 삽화를 그리면서도 삽화 나름대로 줄거리를 갖게 하겠다' 는 의지를 밝힌 박고석은 박경리와 작품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250회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가와 화가의 교류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1969년 9월《현대문학》에『토지』연재를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경남 하동 평사리부터 만주 벌판까지, 6백여 명이 넘는 인물의 삶과 역사적 사건이『토지』속에 그려졌다. 박경리의 고향 통영은 임진왜란 때 수군 통제영이 있던 곳이고, 고등학교를 다닌 진주는 백성들의 힘으로 폭압에 항거하여 1862년 민란이 크게 일어난 곳이었다.



박경리의 정릉 집에서 박고석 화백과, 1961

나고 자란 땅의 역사와 항일정신이 『토지』의 바탕이 되었고, 조선이라는 왕조가 대한제국으로, 일제의 식민지로, 대한민국으로 격변하는 시대를 겪은 작가의 삶이 대하소설에 담겼다.

토지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내 마음 언저리에 자리를 잡은 이야기예요. 외할머니가 어린 나에게 들려주던 얘기가 그렇게 선명하게 나를 졸라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빛깔로 남아 있었어요. … 마흔 여섯부터 지금까지니까 스물네 해를 토지와 더불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삶이 지속되는 한 토지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 박경리의 말 -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만장이 넘는 원고지에 쓰인 『토지』는 5부로 나뉘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연재되었다. 1부는 1972년 9월에 연재를 마쳤고, 2부는 《문학사상》에서 1972년 10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연재되었다. 2부를 연재하던 1973년 딸 영주가 시인 김지하와 명동성당에서

결혼을 하였다. 유신정권 아래 내란선동죄로 7년간 수감된 사위, 그 뒷바라지를 하는 딸과 손자를 어미로서 돌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사위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딸을 대신해 손자를 업고 정릉 집 서재 창틀에 원고지를 놓고 선 채로 글을 썼다.

글 쓰는 것 말고도 그림과 조각에 능하셨다. 바느질과 요리 솜씨도 뛰어났고 농사도 잘 지으셨다. … 결혼 후 온갖 풍파에 부대끼면서 어머니가 대단히 용기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좌우 양쪽에서 힘들게 했지만 한 치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의지가 돼주셨다.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추호의 주저함도 없던 분이다. - 딸 김영주의 말 -

2부를 탈고하고는 반 년 넘게 펜을 들지 못하였다. 정신과 육체의 힘을 모두 쏟아 부은 작품인 만큼 건강도 많이 상한 상태였다. 원고지 한 장을 쓰려면 그 열 배를 쓰고 고칠 정도로 글쓰기에 엄격했다.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도 머릿속은 늘 소설 생각이었다. 두문불출하며 정릉 골짜기 안에서 글만 쓰는 생활에 할머니를 따르는 손자는 큰 기쁨이었다. 손자를 업고 시장을 보러 가고, 마실을 다니며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른 할머니와 다름없었다.

1977년 1월부터 연재를 시작한『토지』3부를 탈고하고, 다음 해인 1980년, 딸과 손자가 사는 원주로 이사를 간다. 치악산 줄기가 보이는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이었다. 이사를 간 뒤 처음 두 달은 집 둘레에 돌담을 쌓는 일만 하였다. 원주에서는 바깥과 접촉을 거의 하지 않은 채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마당에서 흙을 만지고, 밭을 일구고, 나무와 꽃을 가꿨다. '글 쓰는 일이나 땅을 파는 일을 구분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고 할 만큼 글을 쓰는 정신적 작업과 땅을 일구는 육체적 작업에 파묻혀 지낸 때였다.

정릉의 벚나무

정릉 숲 속에
벚나무가 있었다

아이들이 나무를
장대로 두들기고 있었다

손주를 업고
메뚜기처럼 뛰어갔다

버찌 하나 주워
보석같이 샘물에 씻었다

새까맣게 익은 버찌
등 뒤 손주에게 주었다

맛있니? 원보야
응

그때
하늘은 어찌 그리 넓었던지



손자 원보와 정릉 집 마당에서

산과 나는 소리 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흙을 만지면 숨결이 들어오는 것만 같아요.

- 박경리의 말 -

역사, 철학, 문학 등 모든 분야를 섭렵한 독서는 박경리가 글을 쓰는데 가장 큰 자산이었다. 습작 시기에 『세계사대계』를 독파하고 '세상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했을 만큼 이미 책을 통해 시대를 넘나드는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꿰뚫고 있었다. 소설 속 주 무대인 하동 평사리와 간도 용정을 가보지 않고도 실제 모습처럼 그려낸 힘 또한 독서에서 나왔다. 『토지』에서 최참판 집안의 흥망성쇠를 그린 초반부를 벗어나면, 소설 속 무대가 평사리에서 서울, 간도까지, 역사적으로 격랑을 겪는 우리 민족의 삶을 따라 확장된다.

한 명, 한 명 개성을 지닌 인물이 가정,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풀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하소설 『토지』. 각 인물들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고민하여 이름을 짓고, 그 시대와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의 배경과 역사를 기록하며, 지방마다 달리 쓰는 말을 놓치지 않고 문장으로 살려냈다. 1994년 8월 15일, 『토지』의 마지막이 우리나라 해방을 알리는 소식인 것처럼 소설도 광복절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장정을 마친 뒤 박경리는 1996년 토지문화재단을 만들어 원주에 토지문화관을 짓는다. 자연으로 돌아갈 때 살던 땅과 집을 사회에 돌리고자 한 생각이 원주 단구동이 개발되며 조금 일찍 실현된 것이다. 다음 세대들의 문화까지 살펴 그들이 자라날 수 있길 원한 박경리의 뜻이 초석이 되어 국내외 문화인들의 창작공간이자 교류공간인 토지문화관이 지어졌다. 단구동 집은 '박경리문학공원'이 되어 집필실과 텃밭을 보존하고, 전시관을 지어 작가 박경리와 『토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느 때보다 격동에 휩싸였던 20세기 전후의 우리 민족의 서사를 문학 속에 담아낸 박경리. 생명의 존엄을 누구보다 중요시 하며 글과 자연 속에 살다 간 우리 문단의 거목은 『토지』와 함께 아직 살아있다.

정릉동 2013.12.26 3:33 P M 페이지89

박경리

1926년 경상남도 통영 출생, 본명 박금이
1945년 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1955년 《현대문학》에 김동리의 추천으로 단편 「계산」 발표, 등단
1969년 《현대문학》에 『토지』 연재 시작
1979년 박경리 문학전집 전16권 간행
1994년 『토지』(5부 16권) 탈고, 불어판 출간, 이화여자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학위
1995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객원 교수, 토지 영어판 출간
1996년 토지문화재단 창립
1999년 토지문화관 개관
2008년 작고

대표작품

『표류도』, 『시장과 전장』, 『김약국의 딸들』 , 『불신시대』, 『내 마음은 호수』,
『노을진 들녘』,『파시』, 『Q씨에게』, 『거리의 악사』, 『원주통신』, 『토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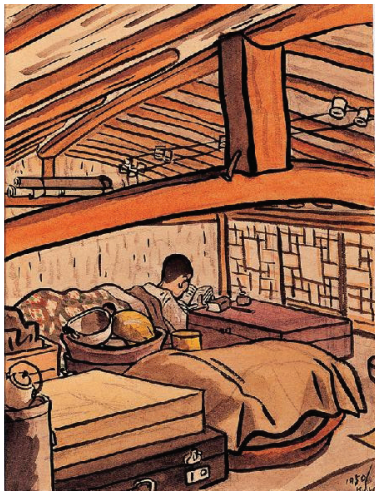
상훈

내성문학상(1959), 한국여류문학상(1965), 월탄문학상(1972), 호암상 예술상(1996)

김성환
金星煥, 1932~

뭉툭하고 큰 코에 보일 듯 말 듯 한 콧수염, 작은 안경과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특징인 '고바우 영감' 은 우리나라 시사만화를 대표하는 주인공이다. 김성환은 50여 년간 '고바우 영감' 을 통해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서민들의 마음을 대신하였다.

1932년 개성에서 태어난 김성환은 서너 살 때부터 연필을 쥐고 방바닥이 까맣게 되도록 그림을 그리고 놀았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로 소문이 났다. 의열단 부단장으로 독립운동을 한 아버지 김동순은 만주에서 지내다 해방 후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내려온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경복중학교에 다닐 때 학비를 스스로 벌어보려고 그림 실력을 살려 만화를 그렸다. 연합신문에 4컷 만화 〈멍텅구리〉를 연재하고, 1949년 화가 김용환이 만든 주간週刊《만화뉴스》에도 전속작가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6.25스케치-1950년 9월 다락방에서의 은신〉, 1950
종이에 연필, 채색, 19.2×1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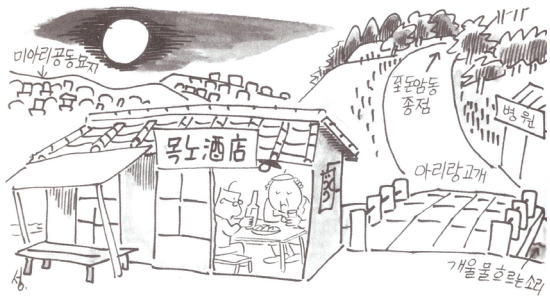
어린 나이지만 만화가로 데뷔하여 실력을 쌓고 있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만다. 개성 친척집으로 피난을 갔다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다시 정릉 집으로 돌아왔다. 정릉 집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친지의 도움으로 마련한 곳이었다. 아리랑 고개를 넘자마자 개울이 있고, 다리를 건너 이어진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집이었다. 안방과 사랑방, 작은 방 세 개가 있고, 삼각형으로 생긴 마당이 붙어 있었다.

개성보다 상황이 나빴던 서울은 끼니거리도 없어 일을 해야 됐지만, 북한군을 선전하는 그림을 그리는 일에 차출 당하거나 군대에 끌려갈 것 같아 다락에 석 달 가까이 숨어 지냈다. 숨어 있는 동안에도 폭격으로 불에 타고,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있는 전쟁의 참상을 스케치 하고, 2백여 명이나 되는 인물 캐릭터를 만들었다.

(집에 오는 길에는) 큰 개울이 있고. 아리랑 고개 넘자마자 다리가 있어요. 여기 (다리 건너기 전에) 병원이 하나 있고. (다리를 건너자마자) 대포집이 있어요. 정릉 집 지붕 담벼락은 여러 개 그렸죠. 마당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불바다가 됐을 때 연기가 올라오는 것도 그렸어요.

- 김성환의 말 -

9.28 수복이 되고 화가 김병기의 추천으로 국방부 정훈국 미술대에 근무하며 계몽포스터와 《만화승리》, 《웃음과 병사》 같은 주간지를 만들어 국군 활동을 홍보하는 일을 하였다. 전쟁 상황을 생생히 그려내기 위해 위험지역인 최전방까지 들어가 보니, 9.28 수복 후 돈암동에서 처음 본 미군들이 우리 군대와 같은 전선에서 적과 싸우고 있었다. 포탄이 터지고, 바로 옆에서 죽는 이들을 봐야하는 곳이었지만 그 순간까지 스케치를 했다. 전쟁 중에도 《만화신보》, 《만화천국》 등에 참여하면서 계속 만화를 그렸는데, 1953년 학생잡지인 《학원》에 연재한 〈꺼꾸리군 장다리군〉은 많은 인기를 얻었다. 전쟁 후 서울로 오니 집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국방부에 들어가기 전 땅을 파고 숨겨 둔 그림과 잡지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불 땔 나무도 없을 때라 '누군가 땔감 대신 가져다 썼겠지' 라는 생각에 씁쓸함이 더했다.



박고석과 함께 가던 정릉 목노주점

전국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다. 문인과 화가들은 명동 다방에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교류하였다. 달리 갈 곳 없던 이들이 하루 종일 다방에 차 한 잔만 시켜놓고 앉아 있는 모양을 우스갯소리로 '벽화'라고 부르기도 했다. 정릉 이웃이던 화가 박고석도 모나리자다방에서 만나 친해졌는데, 집에 갈 때면 같이 돈암동 종점까지 전차를 타고 와 아리랑 고개를 넘어 정릉 입구의 오두막 선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허름하고 작은 술집의 좁은 판자 의자에 앉아 빈대떡 안주에 국산 위스키를 마시며 그림 얘기를 나누는 재미가 있었다. 화가 장욱진이나 김기창, 박수근도 명동 다방에서 사귀었다. 박수근은 그의 그림처럼 순박한 사람이었다. 그림을 사간 미국인이 편지를 보내오면 영어를 읽을 줄 몰라 영문과 출신인 김성환의 아내에게 가지고 와서 해석과 답장을 부탁했다.

후에 박수근이 작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작품 한 점 나누지 못한 아쉬움에 까세(cachet)를 모으기 시작했다. 우체국에서 새 우표 판매를 시작하는 날 편지봉투에 그 우표를 붙이고 당일 소인을 찍은 '초일봉피初日封皮'에 우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을 '까세'라고 한다. 50여 년 동안 김환기, 이상범, 박고석, 장욱진, 김기창, 이현세, 허영만, 이두호 등 작가 161명이 그린 550여 통의 그림을 모았다.

친했던 과거도 회상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일이 잘 안돌아가고 해서 기분 나쁠 때 아무거나 꺼내보거나 하면 마음이 가라앉죠. 그림을 보면서 '이걸 그릴 때 이 작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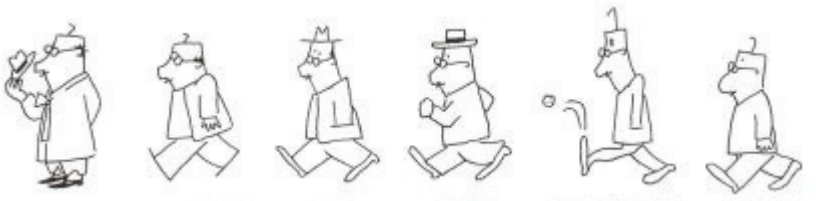
- 김성환의 말 -

총 1만 4,139회를 연재한 대기록을 갖고 있는 '고바우 영감' 은 1950년 주간《만화신보》에 처음 선보였다. 초기에는 콧수염에 중절모를 쓴 모습이었고, 지면을 옮기며《신태양》,《희망》 등에도 실렸다. 몇 년 뒤인 1955년 동아일보에 근무하던 시인 이상노가 문화면에 만화를 그려달라는 제안을 했다. 성인이 볼 수 있는 만화를 발표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한 때라 선뜻 승낙을 하고 그해 2월 1일부터 연재를 하였다. 당시 작품을 연재하던 잡지《학원》 고료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달, 일 년, 이 년…, 꾸준히 만화를 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바우 영감' 때문에 신문을 본다는 독자층도 생겼다.

고바우 캐릭터는 정릉 집 다락방에 숨어서 만든 200여 개 만화 캐릭터 중 하나예요. 영감으로 한 이유는 만화는 의례 아이들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노인으로 그리면 어른도 볼게 아니냐 해서 노인으로 한 거고. 그냥 토속적인 의미로 옛날에 이름 붙이기 전에 아들이 나오면 '바우' 라고도 불렀으니까. 다른 만화 주인공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고바우 표정을 없앴어요. 표정 대신 머리카락 한 올로 표현했죠. 보통 때는 앞으로 구부러져 있다가 화가 났을 대는 똑바로 서고 놀라면 구불구불해지고.

- 김성환의 말 -

'고바우 영감' 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4컷 만화 아래 붙는 광고 수입으로 당시 동아일보 부장 9명 월급을 댄다고 할 정도였다. 다른 신문에서도 다투어 만화를 실었고, 라이벌 신문사에서는 만화를 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월급을 주겠다는 얘기까지 하였다. 고바우는 사회를 대변하는 캐릭터가 되었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고바우가 등장했다.
인기가 높아지며 '고바우 영감' 의 영향력이 커져 필화사건으로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노릇을 하며 돌아다닌 사람에게 아첨하는 관리의 모습을 풍자한 만화로 시경市警에서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



고바우 변화(1950년 주간지 시대-1955년 신문연재 시대-
1956년-1960년대-1970년대 언론탄압 시대-1980년 이후)

고바우 영감이 / 고개를 넘다가 / 고개를 다쳐서 / 고약을 발랐더니 / 고만 낳더래
- 작자미상, 1950~60년대 어린이들이 부른 노래 -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내용 검열을 당해 내용을 지우거나 고쳐야 했고, 즉결재판과 벌금형, 협박까지 당했다. 외국 언론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비평만화인 '고바우 영감'을 주목하였다. 1963년 AP통신은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된 한국인'이라는 제목과 함께 군사정부의 언론탄압과 고바우 만화를 소개하였다. '고바우 영감'이 신문에 실리지 않는 날이면 외신기자들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며 소식을 전했다.

1980년 조선일보, 1992년 문화일보로 지면을 옮겨 연재를 이어갔다. 12월 31일이면 'OO년의 만상'이란 제목으로 한 해를 마감하며 고바우 영감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기록하고 비평하였다. '만년계장, 재능도 학력도 별로 없고 출세도 못하며 미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아내와 딸을 가진 평범한 오십대 후반의 소시민으로 소심한 기질에 초라하기까지 한 고바우 영감'■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2000년 9월, 반세기 동안 시대와 함께 한 '고바우 영감' 연재를 끝맺었다. 이 해에 고바우 50주년 기념우표가 발행되었고, 2013년 생존 작가의 작품으로는 최초로 고바우 영감 원화原畵가 등록문화재 제538호로 지정되었다.

만화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김성환은 1961년 국립도서관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연 뒤 한국화와 서양화를 선보이는 개인전을 10여 차례 넘게 연 화가이다. 1960년대에는 동화작가 마해송이 쓴 동화에 한국화처럼 그린 동화책을 여러 권 내기도 하였다. '고바우 영감' 신문 연재를 마친 뒤로는 화가로서 온전히 작품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틈틈이 집 베란다에 새 모이를 두고 먹이를 먹으러 온 새들의 고갯짓, 날갯짓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순간을 포착해 스케치를 한다.

김성환은 일반적인 화가들과 달리 큰 그림은 작은 방에서 그리고, 작은 그림은 큰 방에서 그린다. 큰 그림에는 치밀함을 담고, 작은 그림에는 공간의 기운을 넣으려는 생각에서이다. 최근에는 한국화에도 고바우를 그려 넣어 신문을 떠난 고바우 영감이 마치 우리 산천을 유람하는 듯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20세기 우리 사회를 함께 걸어온 고바우 영감이 이제 그림 속으로 들어가 우리 곁에 살아 있는 듯, 김성환의 작품 세계는 계속되고 있다.



작업 중인 김성환

정릉동 2013.12.26 3:33 PM 페이지97

김성환

1932년 개성 출생
1949년 경복고등학교 재학 중 연합신문 전속작가가 됨
1955년 동아일보 연재만화 담당, '고바우 영감' 연재 시작
1956년 현대만화가협회 회장
1961년 첫 번째 개인전(국립도서관 화랑, 서울)
1980년 조선일보에서 '고바우 영감' 연재
1992년 문화일보에서 '고바우 영감' 연재
1998년 사단법인 한국만화가 협회 고문
2000년 총 1만 4,139회로 '고바우 영감' 연재 마침
2001년 고바우만화상 제정, '최장수 연재만화' 로 기네스북 등재,
'고바우 50주년' 기념우표 발행
2013년 '고바우 영감' 원화 등록문화재 제538호 지정

대표작품

『세태만상』, 『세모돌이 네모돌이』, 『꺼꾸리군 장다리군』, 『소케트군』,
『고바우 영감』, 『나의 육필까세집』, 『고바우 잡학백과』 등

상훈

소파상(1974), 서울언론인클럽 신문만화상(1988), 보관문화훈장(2002)

최만린
崔滿麟, 1935~

생명의 이미지를 조각으로 표현하는 최만린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어렵게 학비를 대는 어머니를 보며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공부를 한다. 1947년 들어간 경기중학교는 명문 학교로 실력도 있고 집안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다녔다. 해방 후 기반이 잡히지 않은 사회에서 살아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우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에 오르는 수밖에 없었다. 외교관을 꿈꾸며 입시 준비를 하던 중 여러 과목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미술시간에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미술교사는 우리나라 1세대 조각가인 김복진의 제자이자 일본 동경미술대학을 나온 박승구였다. 그는 숙제로 그려온 최만린의 그림을 칠판에 걸어놓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이 만든 조각반으로 들어오라

고 권유하였다. 미술반이 있는 학교는 몇 군데 있었지만 조각반은 경기중학교가 유일했다. 공부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때라 미술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방과 후 남는 시간에 취미로 해 보자는 생각으로 조각반에 들어갔다. 점차 자신의 재능을 아껴주고 이끌어 주는 스승 밑에서 조각에 재미를 붙이고, 예술가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간다. 어느 날 박승구는 자신의 작품을 주며 최만린의 작품도 같이 가지고 가서 미술관에 접수하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두 작품을 품에 안고 경복궁에 있던 미술관에 가보니 처음으로 개최된 '대한민국미술대전' 이었다. 박승구는 〈성관음상〉으로 최고상인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5살이었던 최만린은 〈친구 얼굴〉로 최연소 나이에 입선한다.

미술실에서 소조를 하다가 바닥에 흙을 떨어뜨리자 조용히 다가와 손수 그것을 주워 박승구 선생님은 '흙은 살이거든, 살을 다루듯 하라' 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조각가로서의 꿈을 키워 나갔다.

- 최만린의 말 -

어렴풋하게 조각이란 예술세계에 눈을 뜨던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며 무자비한 전쟁 속에 부모님을 잃고, 스승 박승구는 월북한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 산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겠다는 결심까지 하지만 이내 목탁을 치며 수도하는 스님처럼 자신은 흙을 두드리며, 스스로를 다듬으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대학진학을 앞둔 1954년, 부모님과 같았던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원서를 내려고 했다. 미술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진로에 대해 방황을 하던 어느 날, 명동 다방에서 한 화가를 만난다. '화가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는 물음에 그 화가는 '내가 갈 길을 가고 있어 좋다' 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최만린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지원하여

입학한다. 조각가 김종영, 김세중의 가르침을 받으며, 최정태, 최의순, 송영수 등과 함께 조각을 배웠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세대 작가였던 이들은 전쟁 속에서 죽음을 맞닥뜨렸고, 죽음과 삶의 경계, 인간 본연의 문제에 대해 절실히 고민했다.

서울대학교의 엄격한 교육방식 안에서 자신의 색채를 고민하던 최만린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어려운 사정이지만 대학원에 진학한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구하다 우연히 KBS 제1방송 아나운서 모집한다는 라디오 광고를 듣고 한 번 해보자는 마음에 원서를 냈다. TV가 없던 시절이라 라디오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 남산에 있던 방송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러 와 있었다. 서울말을 쓰고,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곧잘 들었던 최만린은 목소리 테스트와 필기시험을 통과하여 합격하고, 3개월간 연수를 거쳐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한다. 아나운서 일은 다른 직업보다 시간을 조정하기가 수월해서 학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었다. 학위를 받은 뒤 다행히 모교 강사로 출강하게 되며 아나운서 생활을 만 2년 만에 마치고, 학교에 자리를 잡는다.

대학과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책을 찾아 읽고 예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각이 막히고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때 최만린의 눈에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들어왔다. 작은 돌조각이지만 생명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이 작품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생명감이라는 영감을 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생명' 에 집중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것의 근원은 무엇일까, 내 아버지, 그 아버지들이 살았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가면을 연구한다. 민속학자 이두현 선생과 함께 간 하회마을에서 하회탈을 본뜨거나 종이탈을 만들며 그 속에서 선조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었

다. 최만린은 미술 전공자로서는 이례적으로 탈의 의미와 공예작품으로서 가치를 주제로 「한국가면의 조형성」(1963)이라는 졸업논문을 발표하였다.

격동의 시대에 자랐던 암울한 시간,
잠도 못 자고 지새운 긴 밤이 지나
멀리서 떠오르는 여명의 아련함으로
로댕과 미켈란젤로를 배웠던 시절
그러나 서양미학이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없고
아득하긴 하지만 한 걸음 내딛는 마음으로
우리의 바탕이 되는 동쪽을 향해
자생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우리 것의 조형방법을 모색하던 시절
- 최만린의 회고 -



〈이브65-8〉, 1965, 석고, 35x35x80cm

'생명'과 '생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을 탐구하는 첫 시작은 〈이브〉의 탄생이었다. '생명의 고귀함을 지키다 쓰러져간 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브〉는 잔혹한 전쟁을 겪으며 목격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생명력의 표현이었다. 〈이브〉시리즈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최만린은 전시장에서 본 서예 작품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는다. 붓으로 그어진 선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무한한 움직임으로 생명력을 담는 것 같았다. 연필 대신 붓을 들고 드로잉 작업을 시작하여 생명의 이미지를 입체화 시켜나간다. 1973년 개최한 제1회 개인전에서는 〈천天〉·〈지地〉·〈현玄〉·〈황黃〉 시리즈와 우리 민족 전통에서 작품의 모티프를 찾는 작업으로 장승의 모습을 추상화시킨 〈일월日月〉 시리즈를 선보인다.

대학로에 있던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으로 옮겨가며 학교에서는 교직원에게 한강 남쪽, 반포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최만린은 편리한 아파트 보다 자연이 가까이에 있는 곳을 선택한다. '생명'을 찾고, 예술로 표현하는 사람이기에 땅을 밟고, 흙을 만지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1964년 정릉 골짜기, 친구가 가지고 있던 여든 평 남짓의 텃밭을 사서 터를 다지고 손수 집을 짓기 시작했다. 건축비가 넉넉지 않아 시멘트로 기초를 올리고, 정릉 천변에서 모래로 만들어 파는 벽돌을 사다가 벽을 쌓았다. 눈 오는 겨울에는 집 짓기를 멈추고, 부지런히 돈을 모아 건축비를 마련했다. 아나운서 시절 인기 성우로 이름을 날린 아내 김소원을 맞아 묵정동 문간방에서 조촐하게 살림을 시작해 돈암동 전셋집을 거쳐 처음 가지게 된 집이었다.

여기 아주 예쁜 산이 있고, 개천에 물이 흐르고. 아지랑이 길도 좋고. 소박하고. 전원생활이었지. 정릉에서 50년 가까이 살았어. 여기서 일생 산거야.

- 최만린의 말 -

이듬해 봄 하얀 담 위에 빨간 기와를 올린 작은 집이 완공되었다. '열세 평, 사 홉짜리 아주 작은 병아리 집' 이었다. 빨간 기와가 이국적이었는지, 이웃들은 '불란서집' 이라고 불렀다. 집 앞에는 정릉천에서 둥그런 돌을 주어다 대문 기둥을 만들고 철문을 달았다. 대문 양쪽에 담도 쌓지 않아 제대로 된 문 기능은 하지 못했지만 문패를 달아 가족들의 손길과 희망이 담긴 집의 완공을 알렸다. 마당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산에서 캐 온 야생화를 마당 가득 심고, 작은 연못도 만들었다. 그때까지 학교 안 좁은 창고 같이 변변치 않은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최만린은 가족들의 생활공간인 단층집이 완성된 뒤, 이층 높이의 스무 평 되는 화실을 덧대 지었다. 1970년대 정릉일대 택지개발이 시작되며 정릉집 주변으로 대규모 주택지가 조성되었다. 새로 구획이 나뉜 땅을 사 한동안 텃밭으로 가꾸면서 집을 새로 지을 준비를 하였다.




손수 지은 정릉 집, 1970년대 이사한 정릉 집 아틀리에에서 아내와

땅을 사고 10년이란 시간을 들여 지은 두 번째 집은 큰 창문이 있어 앞뒤 마당이 한눈에 들어오는 2층 양옥이었다. 이사 후에는 옆집을 사서 작업실로 삼고, 천장을 높였다. 천장이 높으면 작업하기에도 좋았지만, 넓고 높아진 공간만큼 생각이 트이는 것 같았다.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시야를 넓히고 새롭게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났다. 책을 통해서 본 고대의 위대한 예술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내가 속한 문화와 세계를 보는 체험이 필요했다. 마침 1973년 록펠러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프랫대학(Pratt Institute)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기초교육 과목부터 듣기 시작했다. 그 나라의 예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기 위해 밑바탕부터 살펴보고, 우리의 교수법과 어떤 것이 다른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였다.
수업이 끝나면 책에서 보던 작품들을 찾아 다녔다. 직접 작품을 볼 수 있는 기쁨과 감동도 있었지만,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예술이 집약된 유물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예술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졌다. 망망대해에서 자연과 사투를 벌이는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처럼 느껴졌다.
치열한 시간을 보낸 끝에 '서구 미술이 이질적인 자아임'을 발견한 최만린은 우리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표현방식을 찾으며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한국이란 작은 나라에서 온 동양인의 작업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과 다른 낯선 표현방식에 관심을 보였고, 한 미국인 교수는 이전에 보지 못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 평을 한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거둔 수확이었다.



〈O 96-17〉, 1996, 브론즈, 31x25x27cm

미국 생활이 나를 스스로 느끼는 시간을 줬고. 거기서 내가 작업을 느끼는 내 마음의 작업을 했어. 내가 작든 크든 나를 확인해왔고. 그곳에서 확인한 것은 위대한 작가의 가슴에 내 귀를 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남의 심장 소리야. 자기 심장 소리는 자기가 듣질 못하지만 남의 소리를 듣다보면 내 고동을 잊게 돼. 근데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 심장 때문이야. 자기를 살아야지.

- 최만린의 말 -

첫 개인전을 가진 뒤로 십여 차례 전시를 열고, 일상 속에서 쉽게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통해서도 작품을 선보였다. 1982년에는 한미수교 100년 기념조각을 인천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세웠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만물의 근원인 인간과 인간이 존재하는 자연과 우주, 생명의 근원 모두를 상징하는 〈O〉 시리즈를 발표하는데, 생명의 본질을 더욱 단순화된 형태로 승화시켰다. 'O'는 수가 없다는 영零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무한함과 영원성의 공空, 시작과 끝, 없음과 있음 등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열린 개념이다. 작품 소재에도 얽매이지 않고, 가슴의 울림을 찾아 자신만의 방법과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다.

나의 소재는, 연필이나 펜처럼 도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을 꾸며서 만드는 소재는 해본 적이 없고. 자연스럽게 나의 상념을 형상화 할 수 있는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흙도 썼고, 나무도 썼고, 쇠붙이도 썼고. 기본은 흙이야. 거기에는 표현의 방법에 적합한 것을 쓰는 것이지, 소재가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재료에 대해서는 뭐를 하면 참 근사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기에 적합한 재료를 썼지.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형상화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같이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지.

- 최만린의 말 -

〈이브〉에서 〈O〉시리즈까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최만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가 되어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1997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하며 미술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최만린은 자신의 마음 속에 떠 있는 '예술'이라는 별자리를 믿고 따르며 살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의 '생명'을 조각으로 탄생시키고 있다.



정릉 집 아틀리에

최만린

1935년 서울 출생
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6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1974년 미국 프랫대학 연수
1965년 제4회 파리비엔날레 참여(파리, 프랑스)
196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1969년 제10회 상파울루비엔날레 참여(상파울루, 브라질)
1973년 첫 번째 개인전 개최(신세계미술관, 서울)
1997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2001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표작품

〈이브〉, 〈천지〉, 〈일월〉, 〈天〉, 〈地〉, 〈玄〉, 〈黃〉, 〈胎〉, 〈脈〉, 〈O〉,
〈서울의 만남〉, 〈통일염원의 탑〉, 〈EXPO '93기념조형물〉 등

상훈

김세중조각상(1991), 대한민국미술인대상(2007), 대한민국예술원상(2012)

신경림
申庚林, 1936~

신경림은 충북 노은면, 장터 윗동네라는 뜻의 상입장上立場 마을에서 태어났다. 논밭 몇 두락 건너에 동네 장터가 있었고, 시오리길 밖에는 남한강에서 가장 큰 목계나루 장이 열렸다. 어린 시절부터 신경림은 유난히 장터를 좋아했다. 할머니와 삼촌이 운영하던 국수집, 같은 반 동무들의 집에서 하는 잡화점 · 주막집 · 기름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장을 누볐다. 장날이면 장꾼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온갖 핑계를 대고 장터로 향했다. 친구네 주막은 장꾼들로 가득 찼고, 그들에게 전해 듣는 세상이야기와 구성진 노랫가락을 듣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농한기가 되면 마을을 찾아오던 방물장수를 집으로 데리고 가 어머니를 보채어 하룻밤 묵게 했다. 그날은 동네 할머니와 아주머니들 틈에서 밤을 새며 방물장수 아낙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동무와 더불어 장꾼들 틈에 섞여 놀림감이 되고는 했지만, 그것이 조금도 싫지 않았던 것은, 마당에 내걸린 가마솥에서 끓는 돼지고기 국물을 한 사발씩 떠서 소금을 쳐 훌훌 마시며 그들이 들려주는 바깥세상의 얘기가 여간 재미 있는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늘 몇 사람은 뒤로 빠져 장짐을 베개 삼아 비스듬히 누워서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실상 나는 얘기보다도 그 구성진 노래들이 더 좋았다. … 농사철이 지나면 체와 빗 따위를 이고 지고 죽령과 새재를 넘어오는 아낙네들은 으레 우리 동네로 들어와 잠자리를 구했다. … 아낙네들도 콩으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는 것은 아니었다. 동네 사람이 방 안 가득 모이면 노래 품으로라도 밥값을 하겠다면서 시집살이 노래를 몇 곡씩 내리 불렀다.

- 신경림, 「강따라 노래 찾아」 -

장터를 활개 치던 개구쟁이였지만 공부도 잘하고 책 욕심도 많았다. 3학년 때 목계장터로 소풍가며 본 풍경에 감동을 받아 처음 시를 써 보았다. 이 시가 선생의 눈에 띄어 '꼬마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글을 제법 읽을 수 있게 된 무렵부터 용돈이 생기면 떠돌이 책장수에게 동화책과 만화책을 사다 보았고, 현덕의 동화집 『포도와 구슬』과 『집을 나간 소년』을 읽으면서 소설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오십 리 밖에 있던 읍내까지 책을 사러 가기도 하고, 읽을거리가 없을 때에는 이광수의 『흙』이나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 같이 삼촌들이 읽다 둔 책을 꺼내 읽었다. 1948년 중학생이 된 신경림은 헌책방에서 백석의 시집 『사슴』을 보게 되었다. 공부도 책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 종일 백석의 시만 중얼중얼 읽어 댔다. 그때부터 우울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시를 소리 내어 읽는 버릇이 생겼다. 문학책을 읽으면서 글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져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로는 수업보다 문학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습작을 하며 학교 문예지에 발표한 산문 「들에서」가 현상 모집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문학가의 꿈을 이룬 것 같아 학교 공부에서 점점 멀어졌다. 입시 참

고서 대신 열 권짜리 『도스토예프스키전집』을 읽느라 시험도 뒷전이었다. 백지를 낸 국어시험지를 본 국어 선생님 유촌은 꾸중 대신 시를 써오게 했다. 이때부터 신경림의 글을 눈여겨 본 유촌은 문학에 관심이 있던 아들 유종호에게 신경림의 시를 소개하였다. 후에 유종호는 평론가가 되고, 두 사람은 서울에서 만나 함께 지내며 문단 생활의 든든한 동료가 된다.

동국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고 서울에 올라온 이듬해인 1956년, 시인 이한직의 추천으로 《문학예술》에 「갈대」를 발표하며 문단에 진출한다. 이 무렵부터 본명 응식應植 대신 필명 경림庚林을 사용한다. '應植' 은 획이 촘촘해 맵시가 덜해 그와 비슷한 글자 가운데 '庚林' 을 필명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현실은 문단 초년생이 쓴 순수 서정시의 세계와 달리 전쟁으로 인한 죽음, 가난뿐이었다. 총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과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문학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시와 민중의 삶을 고민하며 동대문과 청계천 일대의 고서점에서 이용악의 「낡은 집」, 와카미 하지메[河上肇]의 「가난이야기」 등을 찾아 읽었다. 고서점에서 만난 친구들과 만든 독서모임 '수요회' 를 통해 정치, 사회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되면서 시와 점차 멀어지고, 문학에 대한 관심도 옅어졌다. 정치적 사상이 다른 지식인들을 구속하는 정부와 시대가 싫었고, 서울 생활을 버텨낼 힘도 없었다.

서울을 떠나 찾아간 곳은 사람냄새 나는 시골 장터였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시작해 공사장, 광산에서 막일을 하기도 하고, 장돌뱅이 친구를 따라 다니기도 한다. 십여 년에 걸친 떠돌이 생활과 가난의 경험, 설움이 가슴에 쌓였다. 1965년 충주 읍내에서 시인 김관식을 우연히 만나 그간 겪은 이야기를 풀어 놓으며 소외된 민중의 삶과 생각, 슬픔을 시

에 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자는 김관식에게 이끌려 정착한 홍은동 산1번지는 시골을 떠돌며 만났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시인 박봉우, 천상병, 백시걸들이 자주 찾아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얘기했다. 서울 올라와 처음 쓴 시 「겨울밤」(1965)은 장날을 앞두고 방앗간 뒷방에서 묵내기 화투로 회포를 푸는 장꾼들 이야기였다. '10년 동안에 만나고 어울려 산 사람들이 하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준다는 생각'■으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파장罷場」, 「눈길」, 「벽지」, 「산일번지」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1971년에는《창작과 비평》에 「폐광」과 「농무」를 발표한다.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 피난 후 돌아온 고향의 광산에서 숨어 지내며 겪은 사건은 「폐광」으로, 장터에서 만난 농민의 삶은 「농무」에 담겼다. 1973년 「농무」는 제1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하고 같은 제목의 시집이 발간된다. '민중시의 개막을 열었다' 라는 찬사를 받은 「농무」는 '시가 인간의 삶을 근간으로 삼는 다는 것, 시인은 역사의 현장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민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그러나 궁핍한 생활은 끝나지 않았고, 함께 가난을 견딘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





'교육평론사' 에서 일하던 시절, 1969
'창작과 비평사' 에서(왼쪽부터 백낙청, 임정남, 정태기, 황석영, 신경림), 1974

신경림은 다시 장돌뱅이처럼 길을 떠난다. '삶의 뒤안길' 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와 노래 속에서 우리 시대를 읽어내고 싶었다. 정처 없이 떠돌았던 이십 대 때와 달리 민중들의 삶이 스며있는 민요를 찾아 남한강 일대와 충청도, 경상도 곳곳을 다닌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마을마다 다른 풍습을 마주하며 더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웠다.

직접 발굴한 민요가락과 이야기를 쓴 「새재」, 「목계장터」, 「어허달구」 등을 모아 시집 『새재』를 펴내고, 1985년에는 민요시집 『달넘세』와 『민요기행』을 발간한다. 전국을 다니며 발굴한 민요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 민속으로 자료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민요를 찾아다니며 민족 문화와 '민중' 에 눈 뜬 신경림은 '민요연구회' 를 만들어 외래 문화를 우상처럼 쫓던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민중들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 앞장섰다. 군사 정권과 광주민주항쟁을 겪으며 언론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을 들어 문학인을 구속하는 부당한 처사에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맞서 싸웠고, 농민들의 터전을 앗아가는 개발 정책을 향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신경림은 잡지 《교육평론》의 편집부원을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으로 1978년 길음동에 작은 집을 마련 한다. 홍은동에서 안양으로, 안양에서 다시 서울로 이사를 다닐 때였다. 친척이 중개해 주어 허름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한 것이다. 4년 뒤인 1982년, 길음동에서 정릉동의 동방주택으로 이사하였다. 2001년까지 30년 가까이 산 이 집은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단층 양옥이었다. 언덕에 있던 집이라 큰 눈이 내리면 며칠씩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고, 유일한 교통수단은 합승택시뿐이었다. 폭우로 불어난 물이 지하로 새어 들어가 시골에서 어렵게 녹음해 온 민요자료, 책들을 버리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정릉 집은 자신의 나이만큼 훌쩍 늙어버린 어머니와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을 품어 주



1982년 이사 한 정릉 집

는 보금자리였다. 5월이면 담장을 휘감은 넝쿨장미가 빨간 꽃을 피웠고, 감나무, 대추나무, 어머니가 손수 키운 20~30개의 화분이 생기를 더했다.

정릉에 있는 동안 『달넘세』, 『가난한 사랑노래』, 『목계장터』 등의 시집을 발표 한다. 한동안 민요 속에 살았던 신경림은 점점 자신의 시가 민요 형식과 가락에 매이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였고, '민요에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배울 것이 없으면 배우지 말자는 생각'■으로 1990년 시집 『길』을 발표하였다. 민요기행 중에 만난 수많은 마을과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생생한 이야기 70편이 한데 묶인 시집이었다.

한편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며 1990년대에는 문학 관련 단체에서 해외 탐방 기회를 마련하였고, 우리 동포들의 삶과 노랫가락을 찾는 발걸음을 해외로 넓혔다. 국내답사와 함께 중국 길림성, 요녕성, 브라질, 남미 등지를 다녔고, 『강 따라 아리랑 따라』, 『사람 사는 이야기』 같은 문학 기행집을 엮어냈다. 이밖에 작고 시인의 고향을 답사하며 시인들과 관련된 일화를 쓴 산문집 『시인을 찾아서』 등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기록해 작품을 발표하였다.



정릉 집 서재에서

시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로 방황도 하였지만, 민중과 민족을 대변하며 그들이 겪은 고뇌와 애환을 시에 담는 시인이 된 신경림. '남들이 가지지 못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내 시의 길' 이라 말하는 그는 지금도 정릉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에 담고 있다.

나는 요즈음 시도 한 그루 나무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끝내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도 시는 그 자리에 나무처럼 그냥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 한때는 고통스럽던 시 쓰는 일이 이제는 즐거워졌다.

- 신경림, 「시인의 말」 -

신경림

1935년 충청북도 충주 출생, 본명 신응식
1955년 동국대학교 영문과 입학
1956년 《문학예술》에 시 「낮달」, 「갈대」, 「석상」이 추천되어 등단
1957년 낙향하여 시골과 장터를 떠돎
1965년 한국일보에 발표한 「겨울밤」으로 활동재개
1973년 시집 『농무』 발간
1984년 민요연구회 창설, 국내를 답사하며 민요수집
1991년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회 공동의장
1992년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1993년 출국금지 해제 이후 중국, 동남아, 남미 등 탐방하며 민요수집
1997년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역임

대표작품

『농무』, 『새재』, 『달넘세』, 『민요기행1,2』, 『남한강』, 『가난한 사랑노래』, 『길』, 『강따라 아리랑 찾아』, 『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등

상훈

만해문학상(1974), 이산문학상(1990), 공초문학상(1998)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이것이
어머니가 서른 해 동안 서울 살면서 오간 길이다.
약방에 들러 소화제를 사고
떡집을 지나다가 잠간 다리쉼을 하고
동향인 언덕받이 방앗간 주인과 고향 소식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엔 동태만 파는 좌판 할머니한테 들른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손자와 친구여서
둘은 서로 아들과 손자 자랑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나절이 가고,
동태 두어 마리 사들고 갔던 길을 되짚어 돌아오면
어머니의 하루는 저물었다.
강남에 사는 딸과 아들한테 한번 가는 일이 없었다.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오가면서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듣고 보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더 멀리 갈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는데.
그 길보다 백 배 천 배 더 먼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고향 뒷산에 가서 묻히셨다.
집에서 언덕밭까지의 다니던 길이 내려다보이는 곳,
마을길을 지나 산직로를 지나 개울을 건너 언덕밭까지,
꽃도 구경하고 새소리도 듣고 물고기도 들여다보면서
고향살이 서른 해 동안 어머니는 오직 이 길만을 오갔다 .
등 넘어 사는 동생한테서
놀라오라고 간곡한 기별이 와도 가지 않았다.
이 길만 오가면서도 아름다운 것,
신기한 것 지천으로 본다면서.

어려서부터 집에 붙어 있지 못하고
미군부대를 따라 떠돌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먼 지방을 헤매기도 하면서,
어머니가 본 것 수 천 배 수 만 배를 보면서,
나는 나 혼자만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것을 죄스러워했다.
하지만 일흔이 훨씬 넘어
어머니가 다니신 그 길을 걸으면서,
약방도 떡집도 방앗간도 동태 좌판도 없어진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걸으면서,
마을길도 신작로도 개울도 없어진
고향집에서 언덕밭까지의 길은 내려다보면서,
메데진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이스탄불에서 키예프에서
내가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어쩌면 어머니가 보고 가셨다는 걸 비로소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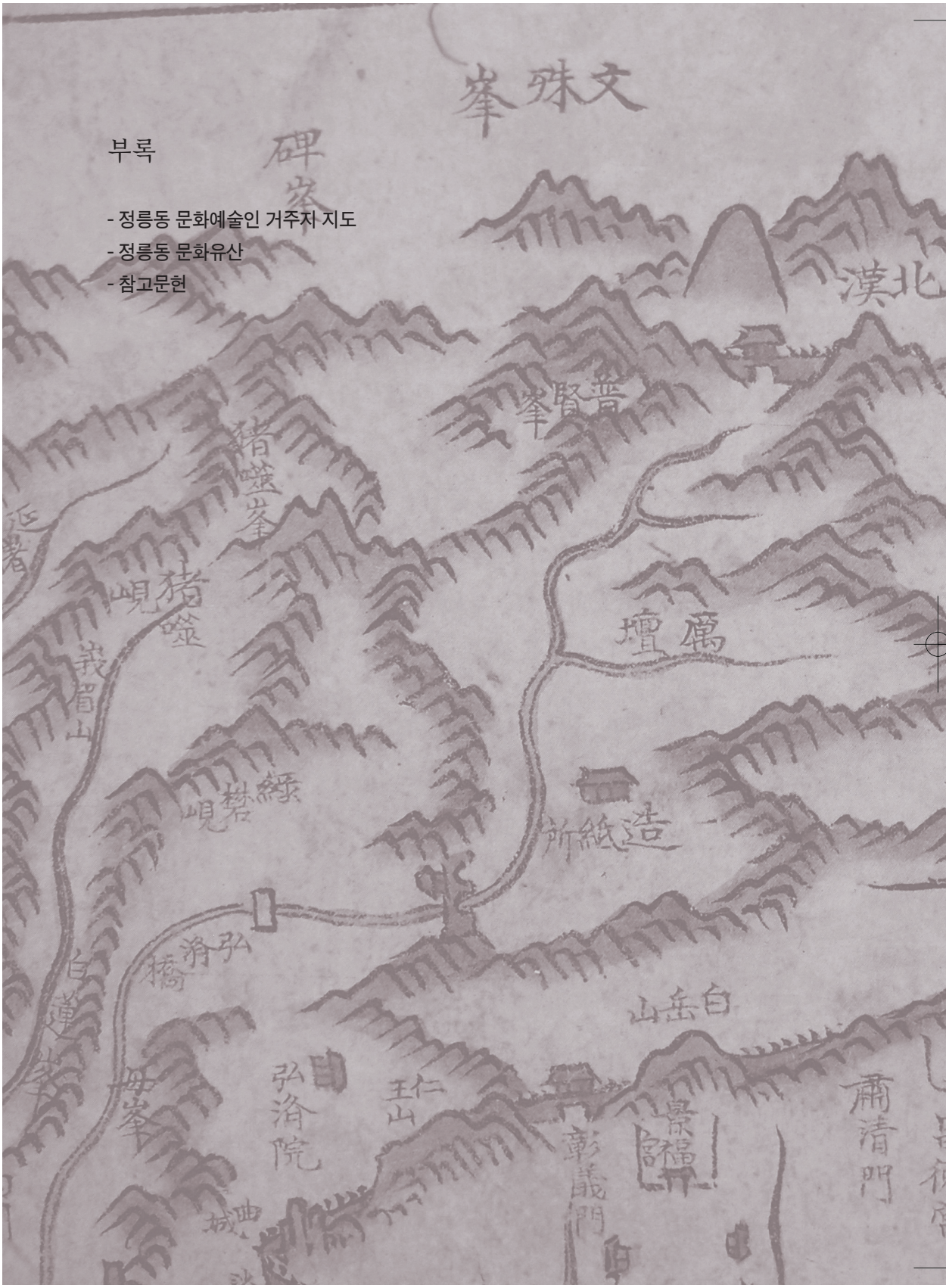
신경림, 2011



박고석, 〈시골길〉

부록

- 정릉동 문화예술인 거주자 지도
- 정릉동 문화유산
- 참고문헌




都城
三角山
北漢
負兒岳
牛耳川源
道峯山
大悲洞
小悲洞
漕渓
牛耳川下流
義里
下義里
貞陵
水喻峴
長位
松溪橋
清凉山
中峯峴
胡喻峴
先農壇
興德門旧基
慶基殿
昌慶宮
昌德宮
肅清門



청수장

● 김대현

박고석 ●

최정희▲

박경리▲

경국사

조연현 ▲

최만린 ■●

국민대학교

한규설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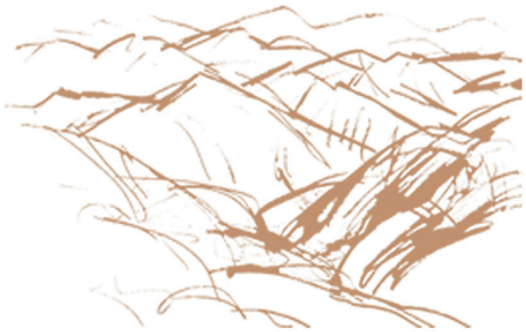
지도 범례

▲ 건물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예술인 집입니다.

● 으로 표시한 곳은 건물이 남아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림: 박고석, 〈정릉청수장길〉, 〈북한산〉



서경대학교

● 차범석 ● 신경림

● 박연희

● 박계주

● 계용묵

정릉시장

▲ 금수현

● 마해송

숭덕초등학교

봉국사

● 김성환

■ 신경림

● 박화성

아리랑고개

정릉

정릉동의 문화유산

정릉 [貞陵]

사적 제208호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16 (정릉동 산 87-16)

조선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의 능이다. 신덕왕후는 1392년 조선 최초의 왕비로 책봉되어 방번, 방석과 경순공주를 낳았다. 아들인 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하기 위해 힘썼으나 '왕자의 난' 으로 두 아들을 잃고, 병환으로 1396년 승하하였다. 신덕왕후와 정도전 때문에 자신이 왕세자로 책봉되지 못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방원은 왕에 올라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격하시키고, 지금의 정동에 있던 능을 성 밖으로 이장(1409년)하였다. 주인 없는 무덤처럼 처량한 모습으로 버려졌던 능은 현종 10년(1669) 때에 이르러서야 다시 복원되고, 종묘에도 배향되었다. 2009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정릉의 원찰은 흥천사였으나 현재 자리로 능을 옮긴 뒤[遷陵] 정릉 옆에 신흥암新興庵을 두어 원찰의 기능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위치도 적당치 않아 돈암동으로 옮겨 새로 지었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흥천사興天寺' 편액을 내려주어 정릉의 원찰로서 이름을 되찾았다. 또 다른 원찰로 고려 때 지어진 절이라고 전하는 봉국사奉國寺, 정릉2동 637와 경국사慶國寺, 정릉3동 758가 있다. 정릉이 옮겨온 뒤 약사사藥師寺와 청암사靑巖寺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정릉동 2013.12.26 3:33 PM 페이지 123



장교동 한규설 가옥 [長橋洞 韓圭卨家屋]

서울민속자료 제7호
성북구 정릉로9길 64 (정릉동 855-2)

조선 후기 한성판윤을 지낸 한규설韓圭卨, 1848~1930이 살던 집이다. 을사조약을 반대하여 장교동 집 사랑채에서 대신大臣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실패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89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집은 본채, 사랑채, 별채, 행랑채가 모두 99칸으로 사대부 집의 풍채를 엿볼 수 있던 곳이었다. 1천 평이 넘던 규모는 한규설이 작고한 후 가문이 기울자 본채와 행랑채가 음식점과 인쇄소로 사용되다 일부가 헐렸다.

도시계획에 따라 집이 있는 자리에 도로와 공원이 생기게 되면서 1980년 남아 있던 본채와 별채 건물을 국민대학교로 이전하였고, 솟을대문과 행랑채를 복원하였다. 장교동 보다 작은 부지로 옮겨오면서 마당이 좁아지고 건물의 배치가 일부 바뀌었다. ㄱ자형 사랑채는 앞면 4칸, 옆면 2칸 규모이고, ㄴ자형 안채는 앞면 6칸, 옆면 2칸 규모이다. 별채는 광채와 연결되고, 뒤쪽에는 사당이 있다. 현재 국민대학교의 생활관인 '명원민속관' 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 그림, 사진 ▫ 인용문 ■ 각주

표지 ▣ 박고석, 〈쌍계사〉, 33x25cm, kistone.com 제공

목차 ▣ 최만린, 〈D-89-2〉, 먹물, 한지에 수채, 1989, 18.8x14cm

간지 ▣ 박고석, 「정릉골」, 『글 그림 박고석』, 열화당, 1994, 63쪽

박화성

9쪽 ▫ 박화성, 「1923년 9월 1일」, 『순간과 영원 사이』, 중앙출판공사, 1974, 39~40쪽

10쪽 ▣ 서정자 편, 『박화성문학전집』 1, 16권, 푸른사상, 2004

11쪽 ▫ 박화성, 「머리말」, 『순간과 영원 사이』, 중앙출판공사, 1974, 26쪽

11쪽 ▫ 박화성, 「나의 교우록」, 『순간과 영원 사이』, 중앙출판공사, 1974, 189~190쪽

12쪽 ▫ 박화성, 「눈보라는 개이려나」, 『눈보라의 운하』, 여원사, 1964, 383쪽

13쪽 ▣ 천승걸 제공

14쪽 ▣ 서정자 편, 『박화성문학전집』, 푸른사상, 2004

14쪽 ■ 김인회, 『반달처럼 살다 날개되어 날아간 예술가』, 열화당, 2001, 44쪽

15쪽 ▫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여원사, 1964, 307쪽

천승준, 천승세, 천승걸

16쪽 ▣ 천승걸 제공

최정희

19쪽 ▫ 최정희, 「나의 여학생 시절」, 『젊은날의 증언』, 육민사, 1962, 22쪽

20쪽 ▫ 최정희, 「나의 문학생활 자서」, 《백민》, 1948.3

20쪽 ▣ 서동수, 『한국여성작가연구-최정희,김지원』, 한국학술정보, 2010, 50쪽

22쪽 ▣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5.12

22쪽 ▫ 최정희, 「문학적 자서」, 『젊은날의 증언』, 육민사, 1962. 14쪽

24쪽 ■ 김동인 외, 「조광 · 삼천리 시절」,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83, 206쪽

24쪽 ▫ 김동인 외, 「조광 · 삼천리 시절」,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83, 202쪽

25쪽 ▣ 최정희, 『풍류 잡히는 마을』, 아문각, 1949 / 최정희, 『바람 속에서』, 인간사, 1955

25쪽 ▫ 최정희, 「산」, 『찬란한 대낮』, 문학과 지성사, 1976

정릉동 2013.12.26 3:33 PM 페이지 127

26쪽 ▣ 서동수, 『한국여성작가연구-최정희,김지원』, 한국학술정보, 2010, 69쪽

계용묵

28쪽 ▣ 계용묵, 《현대문학》 창간호, 현대문학사, 1955.1

29쪽 ▫ 계용묵, 「내가 사는 주변(원제:물할머니 푸념 소리)」(1957.5); 『계용묵전집2-산문편』, 민음사, 2004, 182~183쪽

박고석

32쪽 ▫ 박고석, 「단풍은 무르익고」, 『글 그림 박고석』, 열화당, 1994, 57쪽

33쪽 ▣ 박고석, 〈정릉리 풍물〉, 『글 그림 박고석』, 열화당, 1994

33쪽 ▫ 박고석, 「명사교류도」, 『글 그림 박고석』, 열화당, 1994, 224쪽

34쪽 ▣ 송기한, 『고은』,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40쪽

34쪽 ▫ 박고석, 「풍토성과 전통문제 태동하는 새로운 미술운동에 부쳐서3」, 동아일보, 1958.4.15

35쪽 ■ 「23일부터 다음 소설연재 노을진 들녘」, 경향신문, 1961.10.16

36쪽 ▫ 박고석, 「내가 좋아하는 소재2」, 『화랑』, 1974. 봄호

37쪽 ▣ kistone.com 제공

38쪽 ▣ kistone.com 제공

한묵, 이중섭, 고은

40쪽 ▫ 박고석, 「인간 한묵」, 《공간》, 1973.8; 『글 그림 박고석』, 열화당, 1994, 216~217쪽

41쪽 ▫ 고은, 「나의 산하 나의 삶」, 경향신문, 1994.7.31

박연희

43쪽 ▣ 박남성 제공

43쪽 ▫ 박연희, 「머리말」, 『주인 없는 도시』, 정음사, 1988

44쪽 ■ 김우종,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p343

44쪽 ▫ 박연희, 「아이들과 과일나무」, 《예술원보》, 예술원, 1981, 101~102쪽

45쪽 ▣ 박남성 제공

46쪽 ▣ 박남성 제공

46쪽 ▫ 박연희, 「잊혀지지 않는 일들」, 《월간낚시》 11호

47쪽 ■ 「1일부터 연재 작가 박연희씨에 듣는다. 현대를 조명할 대하소설 송도의 봄」, 경향신문, 1981.1.5
47쪽 □ 박연희, 「낚시터를 방황했던 최영해」, 《월간낚시》 11호
48쪽 ■ 「인터뷰 소설 「하촌일가」 집필한 박연희씨」, 동아일보, 1978.6.9
48쪽 □ 「작가 박연희씨 정들었던 정릉시절을 결산하는 작품」, 경향신문 1983.5.30
48쪽 ▣ 박남성 제공

금수현
52쪽 ▣ 금수현, 「그네」,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55쪽 □ 금수현, 「왕모래집」,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203~207쪽
56쪽 □ 전혜금, 2013.7.12 인터뷰
57쪽 ▣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촬영
58쪽 ▣ 《월간음악》, 월간음악출판부, 1970.7

금나라, 금난새, 금내리, 금누리, 금노상
60쪽 ▣ 전혜금 제공

김대현
61쪽 ▣ 「가을의 수확〈5〉 성가집 영광송 낸 작곡가 김대현씨」, 동아일보, 1979.9.26

조연현
63쪽 □ 조연현, 「나의 중학시절」,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부름, 1981, 245쪽
64쪽 □ 조연현, 「나와 광복 30년」, 『문학과 사상과 인생』, 문학과세계사, 1982, 259쪽
65쪽 ▣ 박종석, 『조연현 평전』, 역락, 2006
65쪽 ▣ 《문예》, 문예사, 1950.6
67쪽 ▣ 조혜령 제공
67쪽 □ 조연현, 「옥상농장」, 『문학과 사상과 인생』, 문학과세계사, 1982, 251쪽
68쪽 ▣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촬영

차범석
71쪽 □ 차범석, 「나의 삶 나의 생각」, 경향신문, 1994.3.31
72쪽 ▣ 차범석, 『옥단어!』, 푸른사상, 2003

73쪽 ▫ 차범석, 「아침식사」, 『거부하는 몸짓으로 사랑했노라』, 범우사, 1984, 121~122쪽
74쪽 ▣ 차혜영 제공
75쪽 ▫ 차범석, 「나의 삶 나의 생각」, 경향신문, 1994.3.31
76쪽 ■ 차범석, 「나를 키워준 고향」, 『거부하는 몸짓으로 사랑했노라』, 범우사, 1984, 46~47쪽
76쪽 ▫ 차범석, 「나의 삶 나의 생각」, 경향신문, 1994.3.31
76쪽 ▣ 차범석, 「극단 산하 10년사」, 산하, 1974.7.30
77쪽 ■ 차범석, 「옛날의 금잔디 동산」, 『거부하는 몸짓으로 사랑했노라』, 범우사, 1984, 25쪽
78쪽 ▣ 차혜영 제공

박경리

80쪽 ■ 박경리, 「나의 출생」,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마로니에북스, 19쪽, 2012
81쪽 ▣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촬영
81쪽 ▫ 박경리, 「창작의 주변」, 『Q씨에게』, 솔, 1993, 230쪽
82쪽 ▫ 박경리, 「서문이라는 것」, 『Q씨에게』, 솔, 1993, 239쪽
83쪽 ▫ 박경리, 「어느 날의 망상」, 『Q씨에게』, 솔, 1993, 141쪽
83쪽 ▣ 토지문화재단 제공
84쪽 ■ 박화성, 「박경리 저, 표류도」, 동아일보, 1959.12.19
85쪽 ▣ 「23일부터 연재하는 노을진 들녘 작가 박경리씨 삽화 박고석씨를 찾아서」, 경향신문, 1961.10.20
85쪽 ▫ 박경리 인터뷰, 《작가세계》, 1994 가을호
86쪽 ▫ 「어머니 박경리, 김지하 사위 삼은게 불행의 시작이었지만」, 동아일보, 2012.7.16
87쪽 ▫ 「정릉의 벚나무」, 『우리들의 시간』, 나남출판, 2008
87쪽 ▣ 토지문화재단 제공
88쪽 ▫ 「상생의 문화를 찾아서-작가 박경리에게 듣는다」, 《당대비평6》, 1999

김성환

91쪽 ▣ 〈6.25스케치 1950년 9월 다락방에서 은신〉, 1950,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김성환 제공
92쪽 ▫ 김성환, 2013.8.3 인터뷰
92쪽 ▣ 김성환, 『나의 육필 까세집』, 인디북, 2005, 164쪽
93쪽 ▫ 「고바우 김성환 화백-까세 받으려 고바우원화를 선물도 했지요」, 아주경제, 2011.11.8
94쪽 ▫ 김성환, 2013.8.3 인터뷰
95쪽 ▣ 『고바우 김성환 작품전시실』 팜플렛, 국립중앙도서관, 1996, 18쪽
95쪽 ■ 「스케치 '고바우' 는 한국서민의 반골정신대변」, 동아일보, 1972.10.7

정릉동 2013.12.26 3:33 PM 페이지 130

96쪽 ▣ 김성환 제공

최만린

99쪽 ▫ 「만나고 싶었습니다」, 《KOREANA》, 2008. 봄호

101쪽 ▫ 「최만린 회고」, 『한국의 추상미술-1960년대 전후의 단면전』, 서남미술전시, 1994

101쪽 ▣ 〈이브65-8〉, 『최만린』, 삶과 꿈, 1998

102쪽 ■ 유근준, 「최만린 조각세계」, 『최만린』, 삶과 꿈, 1998, 69쪽

102쪽 ▫ 최만린 인터뷰, 2013.7.25

103쪽 ▣ 최만린 제공

105쪽 ▣ 〈O96-17〉, 『최만린』, 삶과 꿈, 1998

105쪽 ▫ 최만린 인터뷰, 2013.7.25

106쪽 ▫ 최만린 인터뷰, 2013.7.25

106쪽 ▣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촬영

신경림

109쪽 ▫ 신경림, 「강따라 노래 찾아」, 『우리 시대의 시인 신경림을 찾아서』, 웅진닷컴, 2002, 34~36쪽

111쪽 ■ 신경림, 「나의 길(23)」, 동아일보, 1990.9.16

111쪽 ■ 「올해상반기의 시」, 동아일보, 1973.6.28

111쪽 ▣ 신경림 외, 『신경림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113쪽 ▣ 신경림, 『우리 시대의 시인 신경림을 찾아서』, 웅진닷컴, 2002

113쪽 ■ 신경림, 「나는 왜 시를 쓰는가-노래」 『우리 시대 시인 신경림을 찾아서』, 37~38쪽

114쪽 ▣ 경기문화재단, etc스튜디오 제공

114쪽 ▫ 신경림, 「시인의 말」, 『뿔』, 창작과 비평사, 2002

116쪽 ▫ 신경림,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시 2011』, 작가, 2011

부록

120쪽 ▣ 박고석, 〈정릉청수장길〉, 스케치, 22×32cm

121쪽 ▣ 박고석, 〈북한산〉, 스케치, 35x25cm

123쪽 ▣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촬영

125쪽 ▣ 『성북100경』, 성북구청, 2006, 26쪽

조사개요

기　　간 : 2013년 4월 11일부터 10월 31일
발　　주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사장 김인회)
기획 · 원고 : 혜곡최순우기념관 송지영(학예사), 심지혜(연구원)
사진제공 : 경기문화재단, 토지문화재단, etc스튜디오, kistone.com
※ 사용한 도판은 작가와 유족들께 제공받았습니다.

도움주신 분들(가나다순) :
김영주, 김성환, 박기태, 박남성, 신경림, 전혜금, 조혜령, 차상남, 천승걸, 차혜영, 최만린

자연과 문화유산의 100년 미래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 기부 ·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주도로 영구히 보전 · 관리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최순우 옛집(시민문화유산 1호)' 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문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유산 : 최순우 옛집, 도래마을 옛집, 권진규 아틀리에
(서울 성북동), (전남 나주 다도면), (서울 동선동)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5길 9(126-20번지) | 02-3675-3401~2
http://www.nt-heritage.org | http://cafe.naver.com/ntchfund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0-297069 (예금주: 내셔널트러스트문화)

정릉동 2013.12.26 3:33 PM 페이지 132

정릉동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발 행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기획 · 원고 송지영, 심지혜
제 작 연두와파랑 02 3446 4738
디 자 인 여순임
발 행 일 2013. 12. 26